

# 중앙아시아 고려말의 역사와 그 언어적 성격 \*

곽 충 구 \*

## 1. 서 론

구소련권의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의 여러 나라에서 한인들이 말하는 한국어의 한 변종(variety)을 흔히 ‘고려말’<sup>1)</sup>이라 부른다. 본디 한국어의 지역 방언에서 기원한 이 ‘고려말’은 구소련권에 거주하는 한인들의 이주사와 관련하여 언어학, 사회학, 문화인류학 등 여러 분야에서 주목을 받아 왔다.

1863년 이후 부절히 이루어진 러시아 연해주로의 이주, 그리고 1937년에 단행된 강제 이주를 거쳐 지금까지 거금 140여 년 동안 고려말은 모국과의 교류가 단절된 상황 속에서 또 이질적인 정치·사회·문화 환경 속에서 독자적으로 변화해 왔다.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이주(diaspora)’라는 역사적 사건을 겪으면서 모국어와는 유리된 채 한편으로는 한국어의 여러 지리적 변종들 간의 접촉에 의하여, 다른 한편으로는 러시아어의 영향을 받으면서 변화를 거듭해 온 것이다. 현재 이 고려말은 러시아어에 압도되어 사멸할 운명에 놓여 있다. 이 고려말은 흔히 한국어의 ‘함경도방언’(또는 함북방

\* 이 논문은 2004년 10월 “카자흐스탄의 한국학”이라는 주제로 카자흐스탄 외국어대학에서 개최된 국제학술회의에서 발표한 내용 중 일부를 확대하여 쓴 것이다.

\*\* 서강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1) 킹, 러쓰·연재훈(1992:84~85), 김필영(2004:15~18)에 의하면, ‘고려’, ‘고려어’, ‘고려말’, ‘고려사람’이라는 명칭은 이미 1920년대부터 사용되었다 한다. 중앙아시아로 이주한 후에는 ‘조선’과 ‘고려’라는 말을 아울러 썼으나 1980년대 말부터 공식적으로 자신들을 ‘고려인’이라 부르고 그들의 모국어를 ‘고려말’이라 부르고 있다. 이들 명칭의 사용에 대한 정치·사회적 배경에 대해서는 김필영(2004)를 참고.

언)이라 불리기도 하며 또 ‘언어섬’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이 글에서는 1세기 전 연해주에서 말해지던 한국어를 수록한 문헌과 그 문헌자료에 반영된 고려말의 방언적 특징, 현재의 고려말과 그 고려말의 형성 및 변화 과정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현재의 고려말은 한국어의 지역 방언들이 이주지에서 상호 접촉하며 발달하였기 때문에, 흔히 지중해 연안의 Lingua franca나 기원전 그리스어 방언들 사이에서 형성되었던 Koiné와 비슷한 과정을 거쳐 발달하였을 것으로 보고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다.

*koiné*<sup>2)</sup>라는 용어는 흔히 한 언어에 속한 여러 지역방언들이 상호 접촉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교역 또는 이주 등)이 마련되면서 어느 한 방언을 근간으로 하고 여기에 다른 방언적 요소들이 뒤섞인 것을 일컫는데, 그 환경적 요인에 따라 regional *koiné*와 immigrant *koiné*로 구분하기도 한다. 그러나 *koiné*로 발전한 많은 사례들을 검토해 보면 그 과정이 그리 단순하지는 않다(Siegel:1985). 첫째, 지역 방언이 접촉하게 된 동기나 과정 둘째, 단순한 혼합(mixing, mingling)인지 아니면 하나의 방언을 중심으로 수평화(leveling)한 것인지의 여부 셋째, 진행 과정에서 각 방언들이 보유하고 있는 특질들이 reduction이나 simplification을 어느 정도 경험하였는지의 여부 넷째, 그러한 과정을 거쳐 *koiné*로 발전한 언어가 의사 소통을 위한 공통어로 사용되었거나 사용되고 있는지의 여부 다섯째, 방언들은 그대로 존속하면서 다만 다른 방언권 화자들이 상호 의사소통을 위하여 *koiné*를 쓰는지 아니면 방언들이 모두 사라지고 *koiné*만 존속하는지의 여부 여섯째, 그것이 하나의 언어적 형태로 발전하여 공용어(official language)로 사용되었는지 또 그것이 다른 언어 또는 방언권으로 확대되어 쓰였는지의 여부 등에 따라 그 의미가 조금씩 차이를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고려말은 그 자체의 변화(방언 간의 상호 영향에 의한 변화 또는 그 자신의 변화), 러시아어와의 접촉으로 인한 변화 등 주로 이 두 요인에 의하여 변화를 거듭해 왔다. 때문에 고려말은 일차적으로 *koiné* 형태로 발전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 논문에서는

---

2) *koiné*에 대한 다양한 정의와 그 유형에 대해서는 Siegel(1985), Asher(1994)를 참고.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고려말의 역사와 그 성격을 논의해 보기로 한다.

고려말은 140여 년 간 정치·사회·문화적으로 매우 복잡 미묘한 환경 속에서 변화해 왔다. 이 언어의 변화에 미친 언어 외적 요인을 고려하면 고려말은 대체로 네 시기로 나누어 그 변화 과정을 기술할 수 있을 듯하다. 1기는 1863~1900년대 초(주로 육진방언 화자들이 거주하던 시기), 2기는 1900년대 초~1937(다양한 지역 방언화자들의 이주가 급격히 증가하던 시기로부터 강제 이주 전까지), 3기는 1937~1960년대초(중앙아시아 이주 후 집단농장에서 생활하던 시기, 한국어 교육의 폐지), 4기는 1960년대~현재(도시로 집중되는 시기, 이중언어 사용 및 고려말의 쇠퇴).

현재의 고려말의 실체를 보다 정확하게 분석·기술하기 위해서는 사회언어학 또는 사회역사언어학(socio-historical linguistics)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사회언어학적 관심사들, 즉 사회적 변인에 따른 고려말 내부의 차이, 문화접변(acculturation)이나 언어접촉(language in contact)에 의한 차용이나 간섭(interference) 현상 등이 정밀하게 기술되어야 할 것이나 이에 관한 부분은 자료의 제한으로 소략하게 다루어졌다. 또한 고려말은 일반적으로 사멸해 가는 언어가 보여주는 언어적 현상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연구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나 이 글에서는 다루지 못하였다.

## 2. 본 론

### 2.1. 시기별 고려말의 특징

#### 2.1.1 제1기의 고려말—1863~20세기 초

19세기 후기에 들어서서 재해로 인한 기근을 피해 수많은 합복 주민들이 점차 두만강을 건너 러시아와 만주로 이주하기 시작하였다. 러시아 연해주로의 이주는 1863년 咸北 慶興에 살던 12가구 60명의 주민이 포시에트 인근의 찌진해(Tizinhe)<sup>3)</sup>라는 강가로 이주하면서 시작되었다. 그 이후 상당수의 주민이 연해주로 이주하여 그 곳을 새로운 삶의 터전으로 삼았다.

제정러시아 당시에 간행된 한국어 관련 문헌들에 보이는 방언 특징을 살펴 이주 초기로부터 20세기 초까지 연해주에서 거주하던 한인들의 한국어가 한국의 어느 지역 방언인지 알아보기로 한다.

제정러시아는 연해주에 거주하는 한인들을 통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인들의 언어를 조사하고 그것을 사전으로 편찬하였다. 그 최초의 것이 *Opyt Russko-Korejskago Slovarja*(《로한즈던》, S. Peterburg:1874)이다.<sup>4)</sup> 푸젤로(M. Putsillo)에 의하여 편찬된 이 사전은 최초의 노한사전이자 최초의 한국어 관계 대역사전이다. 이 사전은 Medhurst가 편찬한 *A Comparative Vocabulary of Chinese, Corean and Japanese*(Batabia:1834)라는 책을 기초로 하여 편찬 간행되었다. 《朝鮮偉國字彙》라 불리기도 하는 이 책에는 《倭語類解》와 《千字文》이 들어 있는데, Medhurst는 이들 책에 수록되어 있는 한국어 단어를 영어로 번역해 놓았다. 푸젤로는 그 번역된 영어로 한국어를 이해하고 그를 바탕으로 연해주 한인들의 한국어를 조사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 사전에 실려 있는 한국어는 《朝鮮偉國字彙》에서 전재한 것, 《朝鮮偉國字彙》를 이용하여 연해주 한인들로부터 조사·수집한 것, 그 자신이 직접 조사하고 채록한 것 등 세 유형이 있다. 첫 번째 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대체로 육진방언이나 함북의 하위 방언들이 뒤섞여 있다. 그러므로 이 사전의 한국어를 함북방언이라 단정하고 자료로 이용하는 데에는 세심한 주의가 요망된다. 뿐만 아니라 키릴문자로 전사된 한국어나 한글자모로 전사된 한국어나 모두 오류가 많고 또 표제어에 대한 한글 주석에도 오류가 있다(곽충구 1988). 아무튼 이 사전의 한국어를 분석해 보면 대체로 육진방언의 특징을 보여주지만 비육진 함경도방언<sup>5)</sup>도 보인다. 이것은 이 시

3) 이에 대해서는 *Opyt Russko-Korejskago Slovarja*(S. Peterburg:1874), *Predislovie iv* 및 *Russko-Korejskie Razgovory*(Kazan:1904), *Predislovie i*를 참고. 한편, 러시아 과학원 국동 연구소의 페트로브 선생은 필자에게 이 地名이 ‘鷄心河’라는 중국 지명에서 유래한 것으로 말한 바 있다.

4) 사전의 서지 및 문헌자료의 성격에 대해서는 최학근(1977), 고송무(1980), 곽충구(1988), J.R.P. King(1991)을 참고.

5) 함북 지역의 방언은 혼히 두만강 유역에서 말해지는 ‘六鎮方言’과 그 외의 지역에서 말해지는 ‘非六鎮方言’으로 하위 구분한다. 본고에서는 전자를 ‘육진방언’ 후자를

기 연해주에 거주하는 한인들이 대체로 육진 지역 출신인이고 또 그 외의 함북 출신인들이 있었음을 일러주는 것이다. 가령, 육진방언은 어느 환경에서나 구개음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함북방언에서는 형태소 내부(파생어 포함)에서는 구개음화가 이루어졌고 ‘명사+주격조사’의 환경에서는 구개음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런데 이 사전에는 형태소 내부에서의 구개음화 예만이 간헐적으로 보인다(곽충구, 1988:133~8).

그 이후 20세기 초에는 당시 동방학의 중심지라 할 수 있는 러시아 Kazan에서, 아래 한국어 관계 문헌이 러시아정교선교협회(Pravoslavnoe Missionerskoe Obshchestvo)에 의하여 출판되었다.

- 1) *Pervonachalnyj Uchebnik Russkago Jazyka dlja Korejtsev*, 1901.(«한국인을 위한 초등 러시아어 교과서»)
- 2) *Azbuka dlja Korejtsev*, 1902.(«한국인을 위한 철자교과서»)
- 3) *Russko-Korejskie Razgovory*, 1904.(«노한회화»)
- 4) *Slova i Vyrazhenija k Russko-Korejskim Razgovorom*, 1904.(«노한회화에 대한 단어와 표현»)
- 5) *Optyt Kratkago Russko-Korejskago Slovarja*, 1904.(«試篇 노한소사전»)

위 문헌은 연해주의 포시에트 주변에 위치한 韓人村(Tizinhe, Adimi, Sidimi, Yanchihe 등) 출신으로서 카잔에 머물고 있던 카잔 사범학교 졸업생 및 재학생의 언어를 키릴(Cyrill) 문자를 이용한 음성기호로 정밀전사한 것이어서 당시 러시아 한인들의 언어를 알아 볼 수 있는 소중한 자료이다.<sup>6)</sup>

1901년에 간행된 «초등 러시아어 교과서»는 러시아어 어휘와 연해주 한인들의 함북방언 어휘를 대응시켜 놓은 것으로, 한인 자녀들의 러시아어 회화 학습을 위하여 편찬된 것이다. Kazan 사범학교를 수료한 학생들이 이 책의 편집에 관여하였고, 그들의 발음을 토대로 한국어가 전사되었다. 즉, 연해주 포시에트의 안치혜(Yanchihe)와 아지미(Adimi) 출신인 랑(梁) 씨, 김(金) 씨, 둉(鄭) 씨, 한(韓) 씨가 말하는 한국어 방언 어휘를 키릴문자 및 키

<sup>6)</sup> ‘함북방언’이라 부르기도 한다.

(1)을 제외한, 위 문헌의 언어적 특징에 대해서는 곽충구(1986a,b, 1991/1994) 및 J.R.P. King(1987, 1991)을 참고.

릴문자를 가공한 음성기호로 전사하였다.<sup>7)</sup> 이 책에 수록된 한국어 방언의 특징과 그 예를 간략히 보이면 아래와 같다(키릴 계통의 전사문자로 전사된 것을 필자가 한글자모로 바꾸어 표기하였음).

(1) 수록된 어휘는 육진방언을 포함한 함북 지역의 방언이다.

예: 남데(〈남녕+이〉, 男丁), 노큰야매(중조부), 디키다(지키다), 따갑다(뜨겁다), 마느래(천연두), 머구락지(개구리), 모디기 딥운(몹시 더운), 석매(연자방아), 식기(식구+이, 食口), 자분대기(연장), 하불애비(홀아버지), 행불이(감기), 활살이(화살), …….

#### (2) 『구개음화』

보수형 : 하느바디(입천장), 바디(바지), 장딴디(장딴지), 더 사름이(저 사람), 빙이(빛), 쥐녕(酒酛), 보디기(〈모딜-기, 몹시〉), 어딘 게(어진 것)

개신형 : 좋은 게(〈동은 게, 좋은 것〉), 훈재(〈훈당+이, 訓長〉), 자른(tʃarin, 〈다른, 짧은〉, 정개(tʃeŋge, 〈덩강이, 정강이〉), 고치기(〈고티기, 병을 ~〉, 균치 반 게(끌이 뾰족한 것이), 균치 무딘 게(끌이 무딘 것이), 천반이(〈천반, 천장〉)

(3) ㅅ>ㄷ, ㄱ>ㄷ의 과도교정형이 상당수 발견된다.

ㅈ>ㄷ : 가락디(가락지), 덕삼이(〈적삼, 杉〉), 뚱딥이(뚱+집+이, 胃腸), 덕시기(〈격시-기〉), 그면에(그 前에), 소금대(〈소곰재, 잡자리〉), 개똥벌거지(〈개똥벌거지, 반딧불이〉), 자귀딜(자귀질), 톱딜하기(톱질하기), 살이 딘 게(살이 찐 것이), 더울이~저울(저울), 더나이(〈겨낙이, 저녁〉), 꿀이(〈꽃, 花〉, 송곧이(〈송꽃, 송곳〉, 딥이(집, 家), …….

ㄱ>ㄷ : 다름굽이(기름굽이), 디침이(기침), 데(게<거+이>, 糜)

(4) syV>sV (샤)사, 셔)서, ……)

보수형 : 슈건이(수건), 순한 게(순한 것이), 벵새리(〈병샤리, 瓶〉, 셔당새 얘기(여학생), 셔방간 게(장간간 사람), 셔이(西), 남셔이(南西), 북셔이(北西), 셔기, 셔구(서다, 立), 보셨이(보셨), 석매(연자방아), 쟁문이(정강이), 쇼고기(소고기), 슈에미(수염), …….

개신형 : 무셉아(〈무섭+아, 무서워〉)

(5) #nyV>yV, #ni>i (어두 위치에서의 ‘ㄴ’ 탈락)

7) 이 책은 이 책이 간행된 이후에 출판된 다른 Kazan 문현에 비하여 한국어 전사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한국어 음성에 대한 정밀한 관찰이 돋보인다. 제보자 개개의 음성 특징을 면밀하게 관찰하고 그 음성을 키릴문자로 전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Grammaire Coréenne* 등을 참고하여 한국어에 나타날 수 있는 그 외의 음성도 적을 수 있도록 예비로 전사 문자를 마련해 놓았다. 때문에 이 책에서 고안된 전사용 문자는 1902년에 간행된 *Azbuka*에 와서 상당수 폐기되었다.(곽충구 1991/1994)

보수형 : 니빠대(〈니+빠다+앙이, 이 빠진 사람〉, 낮어뿌리는 게(잊어버리다)  
 개신형 : 염퇴(〈념통+이, 염통〉, 여꾸리(〈녀꾸리), 여름이(〈녀름)

위의 음운 현상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어휘, 음운 특징으로 보아 이 방언의 화자들은 함복 출신으로 보인다.<sup>8)</sup> 구개음화의 개신형이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 함복 하위 지역 방언(육진방언, 함복방언)이 섞여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가장 흥미로운 것은 (3)처럼 구개음화와 관련된 過度矯正(hyper-correction)형이 다수 나타난다는 점이다. 비록 20대 4인의 방언만을 엿볼 수 있을 뿐이지만, 이를 통해서 그 무렵 연해주 한인들의 출신지와 그들의 방언 그리고 방언 간의 접촉 현상의 일면을 관찰할 수 있다. 이러한 과도교정형은 수적으로 열세였던 비육진방언권의 화자들이 육진방언권 화자들과 함께 살면서 육진방언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것이다. 말하자면, 수적으로 다수였던 육진방언권 화자의 문법에는 구개음화 규칙이 없었으므로 구개음화가 이루어진 방언 화자는 자신이 말하는 ‘쟈, 쟈, 죠, 쥬, 지’를 ‘댜, 더, 도, 듀, 디’로 교정하고자 하였을 것인데, 이 때 과도하게 ‘쟈, 쟈, …’를 ‘댜, 더, …’로 교정한 것이다. 그 과도교정의 예가 수적으로 꽤 많은 것으로 보아 비육진방언 화자는 육진방언 화자들과 살아가면서 육진방언을 의식적으로 익히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sup>9)</sup> 중부방언에 대한 이해가 없거나 적었을 시기의 폐쇄된 농촌 사회에서, 소수의 비육진방언 화자는 그 지역의 화자들이 말하는 육진방언에 동화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過度矯正의 方向(쟈→دية)이나, 일반적으로 과도교정을 일으키는 화자들의 心理的 動機를 고려하면 이 시기 육진방언 화자는 다른 방언의 화자에

8) (2)의 ‘글치(끝-이)’는 흥미로운 예이다. 필자가 아는 한, 함경도에서는 형태소 경계에서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함남 일부 제외, 곽충구(2001:249)의 [지도 1]을 참고할 것.) 때문에 위 제보자 중에는 선대의 거주지가 함복이 아닌 사람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3)의 예 중 본디 ‘쟈’가 아닌 ‘저’를 ‘دية’로 교정한 ‘녀냑(〈저냑〉’, ‘녀울(〈저울〉)’도 그러한 사실을 뒷받침한다.

9) 이러한 과도교정이 책의 편집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행해진 것인지 또는 변화형으로 자리를 굳힌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육진방언형(비구개음화형)을 하나의 표준(nom)으로 인식한 심리적 동기만은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과도교정으로 생겨난 ‘아디바이(아지바이(아즈바니)’는 지금도 고려말에 남아 쓰이고 있다.

비하여 수적으로 압도적이었음에 틀림없다.

이 책에 수록된 한국어 어휘는 중부방언에서 볼 수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고 또 학생들이 일상적으로 쓰는 어휘의 발음을 전사한 것인데다, 이 무렵 연해주에는 러시아 학교만이 있었으므로 여기에 당시 중앙어 또는 중부방언의 영향이 있었으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다. 그 하나의 방증이 ‘ㅈ, ㅊ’ 음에 대한 관찰과 그 전사이다. ‘ㅈ’은 [ts], [tʃ], [t̪]으로 전사되었는데, 정말하고 정확하다. 그 예는 다음과 같다.

[ts], [ts<sup>b</sup>] : 저울, 자작이](tsazagi, 자작나무), 참새, 자-기(眠), 죽이]-기, 재(灰), 잔 게(자잘한 것), 참애(참외), ……

[tʃ], [t̪] : 천 냥이(千 냥), 종애(紙), 칩이(추위), 천반이(〈천반, 천장〉, 고치(고추), 후치(후추), 쳐르(〈더르, 처럼〉, cf. 학질을 하는 거쳐르 던다(떤다).

[t̪] : 장물이(국, 糧), 죽이(죽, 粥), 장갑이(장갑), 져구리(저고리), 목걸이(목젖), 쥬래(기관지), 경개(〈명개, 정강이〉), 자라한다(자랑한다)

[ts]는 치음, [tʃ]는 경구개음이다. [t̪]는 “치음 [t]가 軟音化하고 또 그와 동시에 마찰적 기생음 [ʃ]가 부가된 음<sup>10)</sup>”이라 하였으므로 경구개치조음을 전사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1902년에는 《한국인을 위한 철자교과서》<sup>11)</sup>가 간행되었다. 엘.엔. 톨스토이의 *Novaja Azbuka*<sup>12)</sup>(24판, Moskva:1900)에 수록된 내용을 포함하여 91편의 짤막한 이야기를 육진방언으로 번역 재구성한 다음 키릴 계통의 전사문자로 전사한 것이다. 상당수의 구어가 수록되어 있어 당시 연해주 한인의 고려말을 생생하게 접할 수 있다. 그리고 1904년에는 러일전쟁 당시 정

10) predislovie, p.15. 한편, [tʃ]와 [t̪]의 차이를 굳이 전사에 반영하고자 한 의도는 알 길이 없으나, 육진방언 화자의 ‘ㅈ’음(곽충구 2001)과 비육진 화자의 ‘ㅈ’음이 달랐던 데에 말미암은 것으로 보인다. 현재 육진방언(중국)의 ‘자, 죄, 죠, 쥬’의 ‘ㅈ’은 중부방언의 ‘자, 저, 조, 주’의 그것보다 더 설배적이다.

11) 이 책에 대해서는 J.R.P. King(1989), 곽충구(1991/1994)를 참고할 것.

12) 러시아어를 배우는 초심자가 키릴문자를 익히고 간단한 문장을 터득할 수 있도록 꾸며진 학습서. 이 책은 러시아인들은 물론 러시아 영내에 거주하는 이민족의 러시아어 교육에 사용되었다 한다(*Opyt Kratkago Russko-Korejskago Slovarja, Predislovie* 참고).

보 수집 등의 목적으로 《노한회화》<sup>13)</sup>가 간행되었으며, 이 회화집의 후속 편으로 《노한회화에 대한 단어와 표현》이 간행되었다. 이 책은 프랑스의 방선교회 소속 신부들이 편찬한 *Grammaire Coréenne*(Yokohama:1881), *Dictionnaire Coréen-Français*(Yokohama:1880) 등을 참고하여 당시 연해주 씨 진해에서 말해지던 육진방언의 격조사와 활용어미 체계도 기술해 놓았다. 같은 해에 연해주 한인 2세들의 러시아어 교육을 돋기 위하여 《시편 노한 소사전》<sup>14)</sup>이 간행되었는데, 《로한즈던》과는 달리 제법 사전다운 면모를 갖추고 있다. 이 사전에 수록된 한국어는 육진방언권에 속하는 함북 慶源지역어로 보인다. 이 사전에 수록된 육진방언은 G.J. Ramstedt가 한국어의 역사 및 알타이어 어휘 비교 대응에 이용한 바 있다.<sup>15)</sup>

러시아의 카잔에서 간행된 이들 문헌에 수록된 한국어는 모두 당시 연해주 한인들이 말하던 육진방언이다. 《한국인을 위한 철자교과서》의 편집에는 아래 세 사람의 한국인이 참여하였다.

서(徐) 씨, 1882년 경 함북 吉州에서 아주한 가정에서 출생, 연해주 시지마 출신  
 강(姜) 씨, 1872년 함북 慶興에서 아주한 가정에서 출생, 연해주 씨진해 출신.  
 한(韓) 씨, 1872년 함북 慶源에서 아주한 가정에서 출생, ” .

이 중에서 주로 함북 경흥 출신인 姜 씨의 한국어 방언을 전사하였다. 본문에는 흑간 k-구개음화 예들이 발견되고 또 [pöudal](보이다)처럼 육진방언이 아닌 어휘가 보이는데, 이것은 함북 吉州 출신인 徐 씨의 방언이다. 이들 k-구개음화 예는 서문에서 비구개음화형으로 교정해 놓았다.

13) 이 책에 대해서는 곽충구(1986a,b)를 참고.

14) 이 책에 대해서는 곽충구(1987)을 참고.

15) 핀란드의 헬싱기 대학의 람스테트 문고에 소장된 이 사전의 간지에는 람스테트가 편편히 메모한 내용이 적혀 있다. 그의 논저, "Remarks on Korean Language" (*MSPOu* 58, 1928), *Studies in Korean Etymology*(I. *MSPOu* 95, 1949, II. 1953), *A Korean Grammar*(*MSPOu* 82, 1939), *Einführung in die Altaische Sprachwissenschaft*(II. *Formenlehre*, 1952. I. *Lautlehre*, 1957)의 'N.K.'로 표시된 한국어 방언 중에는 이 사전에서 인용한 것들이 있다. 한국어의 역사를 재구하고 또 어휘 비교를 통해 알타이어 가설을 수립할 목적으로 인용한 것이다.(곽충구 1987)

《노한회화》 역시 여러 명의 한국인 학생들이 편집에 간여하였는데 이 중 함복 慶興 출신인 姜 씨의 방언을 전사 채록하였다. 그리고 《시편 노한 소사전》은 모두 6명의 한국인 학생이 편집에 참여하였는데 이들 중, 함복 慶源 출신인 韓 씨의 방언을 전사 채록한 것이다.

이렇게 20세기 초에 간행된 위 문헌의 한국어는 육진방언이다. 그러면 왜 당시 중앙어 또는 비육진방언권의 방언을 취하지 않고 매우 보수적인 함복 육진방언을 채록하였을까? 위 책의 편찬자들은 *Dictionnaire Coréen-Français*, *Grammaire Coréenne* 등의 문헌을 참고하였으니, 당시의 문헌에 수록된 한국어를 그대로 轉字(transliteration)할 수도 있었을 터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위 문헌에 등재된 한국어와 육진방언이 음운·문법·어휘 면에서 현저한 차이를 보였고 또 당시 연해주의 한인은 대부분 러시아 국경지대에 인접한 朝鮮의 육진 지방으로부터 이주한 사람들이어서 그들의 일상어로써 책을 편찬해야만 러시아어를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위 Kazan 문헌은, 책의 서문에서 일관되게 언급하고 있듯이, 연해주에 거주하는 한인들의 러시아어 교육 또는 두만강 유역의 한국인들과의 대화를 위하여 편찬된 것이다. 다시 말하면, 당시 연해주 거주 한인들은 대체로 육진 방언 화자였기 때문에 책의 한국어는 육진방언을 표준으로 삼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sup>16)</sup>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사실은 위 한국어 방언은 육진방언 중에서도 러시아와 바로 이웃하고 있는 함복 慶興과 慶源의 방언이라는 점이다. 越境이 금지되었던 시기이므로, 당시 연해주에는 러시아로의 이주가 용이한 위 두 지역의 이주민이 특히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

16) 위 Kazan 문헌 외에, 20세기 초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말해지던 한국어를 채록한 문헌이 있다. N.P. Matveev(1900)의 *Spravochnaja Kniga g. Vladivostoka*가 그것인데 이 책에 수록된 한국어 방언의 음운 특징은 대체로 Kazan 문헌 자료의 그 것과 같다. '가디'(가지, 茄子), '딤이'(짐, 荷)와 같은 과도교정형이 등장한다는 점도 같다. 다만, k-구개음화 예가 다수 발견된다는 점만이 다르다. 이에 대해서는 J.R.P. King(1988:281~314)를 참고.

### 2.1.2 제2기의 고려말—20세기초~1937년까지

이 시기는 口語 자료가 없어 고려말의 실제 모습과 그 변화 과정을 기술하기는 어렵다. 다만, 이주민 수효의 변동과 정치·사회적 변화와 같은 언어적 환경을 관찰하고, 또 이 시기에 연해주에서 태어나고 성장한 사람들의 고려말과 그들의 증언을 통하여 그 대강을 짐작해 볼 수 있을 따름이다.

20세기 초에는 이주민의 수효가 급증한다. 지금까지 나온 여러 통계 자료에 의하면 1863년에 60여 명, 1870년경에는 3,473명, 1882년 10,137명, 1902년에는 32,419명에 이른다.<sup>17)</sup> 2.1.1에서 소개한 문헌이 간행될 당시에는 무려 3만여 명이 거주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20세기 전후한 시기의 함북 육진 지방에는 대략 10만 명 내외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었다. 예컨대, 1899년 慶源府에는 18,789명(《慶源府邑地》, 光武 三年), 1912년 함북 慶興郡에는 17,458(《慶興郡誌》, 1988), 1884년 會寧府에는 20,707명(《會寧郡誌》, 1978)이 거주하였다. 따라서 20세기 전후한 시기 육진방언권(육진에서 富寧을 제외한, 慶興, 慶源, 穩城, 鐘城, 會寧 5郡)에는 어림잡아 10만 명 미만의 인구가 거주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20세기 초기까지 몇 명의 육진 지역의 주민들이 러시아로 이주하였는지는 알 길이 없지만, 위에서 제시한 20세기 전후 육진 지역의 인구수를 감안하면 이 무렵 연해주에 거주하던 3만여 명은, 이주 후의 자연증가율을 감안하더라도 모두 육진방언 화자라 보기는 어렵다.

20세기 초로부터 강제 이주가 이루어진 1937년까지, 한인의 인구 증가는 다음과 같다.

1906년에 34,399명이던 것이 국권 상실 이후에는 급격히 증가하여 1910년에는 54,076명, 1914년 64,309명, 1923년 106,817명, 1927년에는 170,000여 명에 이르렀다. Kho(1987:17)에 의하면, 1923~1926년 사이에는 이주민 및 자연증가율을 합쳐 매년 17%씩 증가하였다 한다. 역시 Kho(1987)에는 1932년에는 19만, 강제 이주 바로 한 해 전인 1936년에는 205,000명이 거주하였을 것으로 추산하고 이중 10%는 도시에 거주하고 90%는 농촌에 거주

17) M. Putsillo(1874), Kim Syn-Khva(1965), Kho(1987) 등의 자료를 참고.

하였다고 하였다.

위 통계 자료에 의지하면, 20세기 초 이후에는 함경도는 물론 함경도 이외의 지역인들이 대거 이주하였음을 추측할 수 있다. 이로써 육진방언은 점차 위축되고 고려말은 점차 새로운 방향으로 개신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이 때 서로 다른 방언권 화자들간의 접촉이 상대적으로 증대하였을 것이다. 사회적 교류가 극히 제한적이었던 시기의 폐쇄적인 농촌 사회에서 육진방언 화자들은 수적인 면에서 우월한 지위를 누릴 수 있었고 그 때문에 모방언을 유지해 나갈 수 있었지만, 20세기 초부터는 그 양상이 반전된 것이다. 우선 비육진 출신인들이 압도적으로 증가하여 수적인 열세를 면하기 어려웠고 또 사회적 교류망(social networks)도 이전보다 훨씬 확충되었다. 또 러시아 공민이 되기 위해 러시아어 교육을 받고 또 러시아 정교에 관심을 두던 시기에서 체계적으로 모국어를 학습할 수 있는 시기로 변화하였기 때문이다. 한인 이주민의 급격한 증가, 사회주의 혁명 등 고려말의 변화에 영향을 끼친 새로운 언어 외적 환경이 조성된 것이다. 혁명 이후에는 마을마다 소학교가 들어섬으로써 교육 기회가 확대되었다.<sup>18)</sup> 1920년대부터 시작된 이러한 교육 기회의 확대로 중부방언의 영향도 다소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외적 환경의 변화로 말미암아 육진방언은 급격한 변화의 길을 걷게 된 것이다. 상대적으로 비육진방언 화자들은 육진방언권의 영향에서 벗어나게 됨으로써 고려말은 육진을 제외한 함경도 지역의 방언으로 점차 변화의 길을 걷게 되었던 것이다.

이 격동기의 고려말에 대해서는 그 정황을 분명히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대해서는 부모가 육진방언권으로부터 이주한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으로서 1937년 강제 이주 전에 소학교를 졸업한 세 사람의 증언을 통해서 가능해 보기로 한다.

1914년 출생으로 현재 알마아티에 거주하는 채안나 할머니의 증언은 다음과 같다. 연해주 수청(水淸)에서 살다가 25세에 강제 이주를 겪은 채안나

18) 1930년대에 초등학교가 300여개소, 초급중등학교가 56개소가 있었고, 1929년에는 사범전문학교, 1931년에는 조선 사범대학이 설립되었다. 한편 신한촌에서는 조선 일보, 해조라는 조선어 신문이 간행되었다.(한득봉:1991, pp.610~611.)

할머니는, 1920년대 마을에 학교가 들어서면서 소학교와 중학교 과정의 교육을 받았다. ‘고려학교’에서는 ‘국어, 산수, 역사’ 등 여러 교과목을 가르쳤으며 교사는 남자 선생님 한 분과 여자 선생님 세 분이었다(한 분은 ‘내디(內地)-朝鮮’에서 들어 왔다 함). 이 무렵 많은 어린이들이 이러한 학교 교육을 받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연해주 시절에는 러시아어를 구사하지 못하여 러시아 사람들과는 ‘손가 발로 형용(손과 발로 시늉)’하여 의사 소통을 하였으며 러시아어는 중앙아시아로 옮겨온 뒤에 배웠다. 채 할머니는, 거주지역에는 함경도 사람들이 모여 살았고 아주 직전까지도 모두 자신의 말과 같은 함경도 말을 썼는데, 자신이 구사하는 함경도 말은 ‘탁한 말’, ‘무식한 농촌 말’이라 하였다.<sup>19)</sup> 이러한 모방언에 대한 언어태도(language attitude)는 중부 방언을 차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 그런데 이렇게 학교 교육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중부방언을 접하게 되었으나 채 할머니는 여전히 육진방언을 구사하고 있었다. 채 할머니가 지금까지 모방언을 구사할 수 있었던 것은 폐쇄된 주거지에서 농업에 종사하였고 또 동향 출신들이 모여 사는 곳에서 성장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또 한 분의 제보자 김마리아 할머니(84세)는 조부와 부모가 육진 방언권(함북 慶興) 출신이지만 의외로 비육진방언을 구사하였다. 남편은 조부모가 역시 육진방언권(함북 慶源)에서 아주한 가정에서 출생하고 교사를 지낸 사람이다. 러시아 이만(Iman)의 한 마을(70여 호의 함경도 출신인 집 거촌)에서 출생하고 7년제 ‘고려학교’에서 교육을 받다가 5학년이 되던 19세에 결혼하고 20세가 되던 1937년 크즐오르다에 와 정착하였다. 그 곳에서 농사를 짓다가 1972년에 알마아티로 와 살고 있다. 김 할머니가 육진방언을 쓰지 않게 된 이유는 분명히 말하기 어려운데, 연해주 시절에 비육진방언 화자들과의 접촉 또는 집단농장에서의 영향 때문이거나 또는 부모가 경홍군의 남부 출신이어서 본디부터 비육진방언권 화자였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되는데 전자일 개연성이 높다(2.2.3의 2)를 참고).

또 다른 한 분은 부모가 함북 慶源에서 연해주로 아주한 가정에서 출생

19) 중국의 조선족들도 자신의 방언을 이렇게 표현한다.

한 박세르게이 (91세) 씨로서 직업 군인 출신인데 채안나 할머니처럼 육진 방언을 구사하였다. 초중등 교육을 받은 분이지만 또 군 복무를 하면서 러시아어만을 썼기 때문에 모방언인 육진방언을 유지할 수 있었다. 어떻든 이 세 분은, 모두 같은 고장 출신이며 조부 때(부모가 어릴 때) 연해주로 이주하였고 학력도 비슷하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두 분은 육진방언을 구사하고 다른 한 분은 비육진 함북방언을 구사하였다. 이는 주거지역의 형태(산거, 집거 또는 동일 방언 사용자 집단 여부), 직업, 교육, 성별 등 사회적 변인과 관련이 있을 터인데, 채 할머니는 폐쇄적인 농촌에서 성장하였고, 박 씨는 군복무를 하였다는 점 때문에 모방언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들 세대에서의 모방언 유지 여부는 ‘주거지역의 형태’나 ‘직업’이라는 변인이 작용하였고 상대적으로 ‘교육’은 별반 영향을 끼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난다.

한편, 김빅터(조부가 강원도 高城에서 중국을 거쳐 연해주로 이주) 씨는 완전히 비육진 함북방언을 구사하였다. 이는 강제 이주 전의 연해주에서는 이미 육진방언이 아닌 함북방언이 주류 방언으로 그 자리를 굳혔고 중부방언은 그 지위가 매우 미약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sup>20)</sup> 요컨대, 제2시기의 우월적 지위는 육진방언에서 비육진 함북방언으로 바뀌었는데, 이에 영향을 미친 변인은 ‘개별방언 화자의 수’였다. 함북방언 화자의 이주가 급증하면서 생긴 결과임은 물론이다. 이 시기 고려말의 변화에는 ‘개별방언 화자의 수, 주거지역의 형태, 모방언에 대한 언어태도, 연령, 직업, 성별, 교육’ 등의 변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 2.1.3 제3기, 제4기—중앙아시아의 고려말

80년대 말에서 90년대 초에 이르러 소련의 개혁 개방과 뒤이은 소비에트 연방의 해체로 중앙아시아 한인들의 언어인 고려말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기 시작하였다. 초기에는 이주의 역사나 민족정체성(ethnic identity)<sup>21)</sup>과 관련하

20) 중부방언뿐만 아니라 비환경도방언은 모두 이와 같았을 것이다.

21) 최근에도 김올가(2001), 차바실리(2001) 등이 사회학이나 인류학의 관점에서 고려

여 고려말의 사용 실태나 고려말의 특징을 소개하는 글들이 발표되었다. 그 내용은 고려말이 함북방언의 한 변종(variety)이라는 점, 모국어 사용이 연령에 비례하여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는 점, 중앙아시아 한인들의 공용어는 서울이나 평양 말이 아닌 현지 고려말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 등이다. 순수히 언어학적 관점에서 접근하여 고려말을 연구하기 시작한 것은, 고려말의 어휘적 특징을 단편적으로 보고한 고송무(1984, 1987)로 거슬러 올라간다. J.R.P. King(1987), Vovin(1989)도 어휘 조사 자료를 소개하고 방언 특징을 언급한 것이다.

중앙아시아 고려말에 대한 기왕의 연구는, 고려말 중에서 극소수의 노년층이 구사하는 육진방언을 대상으로 그 음운·문법·어휘적 특징을 조사하고 보고하는 것이었다. 육진방언은 그 음운 현상이 매우 보수적이고 또 이질적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게 된 것이다. 러쓰, 킹·연재훈(1992), 이기갑·김주원 외(2000), Pak(1991) 등이 그 대표적인 업적이다. 이들 논문은 고려말을 육진방언과 비육진방언('흔히 길주·명천 방언으로 부름')으로 나누어 관찰하고 그 언어적 성격과 특징을 몇 갈래로 나누어 기술한 것인데, 대체로 노년층은 고려말을 자유롭게 구사하고 또 그들의 모방언인 '육진' 및 '길주·명천'의 방언이라 한 방언 특징을 온전히 보존하고 있다는 내용이다.<sup>22)</sup>

한편, 나라리사(2002)는 노년층이 말하는 일상적인 구어를 조사하고 문법·어휘적 특징을 기술한 것인데, 소략하기는 하지만 언어접변 현상도 언급하였다. 예컨대, 친족명칭이나 차용어를 조사하고 여기에 러시아 문화가 어떻게 영향을 주었고 그것이 고려말에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며, 그 결과 고려말의 문법(상대경어법)이나 어휘체계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를 보여

말을 논의한 바 있다.

22) 이 외에 고려말을 좀더 미시적으로 관찰하거나 또는 언어접변을 논의한 논문도 발표되었다. 고려말은 러시아어와 오랜 동안 일정한 관계를 맺어 왔으므로 당연히 언어접변의 문제가 관심을 끌었던 것이다. 고려말 속에는 19세기 이후부터 차용된 러시아어가 많아서 오구라(1927)부터 이들 차용어에 대한 조사 연구가 단편적으로 이루어졌는데, J.R.P. King(1996)은 러시아어가 고려말에 차용된 기제와 과정을 정밀하게 밝히고자 하였다.

주고 있다. 즉, 원 합북방언과 고려말의 상대경어법은 ‘합쇼, 하오, 해라’의 3등급이지만 ‘하오’체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 친족호칭어의 경우는 “젊은이들이 러시아어를 사용해도 친족명칭만은 고려말을 사용한다.”고 말한 것처럼 다른 어휘에 비해 오래도록 쓰이고 있지만, 이도 부모 호칭어만은 러시아어식으로 ‘마마mama’, ‘빠빠papa’라 한다는 점, 제수나 처남에 대한 친족호칭 어는 알고는 있지만 사용하지 않고 이름을 부른다는 점,<sup>23)</sup> ‘맏아매ka’, ‘맏아바이ka’처럼 친밀감을 나타내는 러시아어의 어미 ‘-ka’를 결합시킨다는 점 등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예는 러시아의 문화를 반영하고 있는 러시아어가 고려말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현재의 고려말은 ‘연령, 주거지역의 형태, 교육 정도’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나 그 특징을 간략하게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 1) 음운

모음은 8모음체계이다. 대체로 합북의 비육진방언의 음운 특징을 갖는다. 예컨대, 제1기의 고려말에서 볼 수 있는 ‘#nyV, #ni’, ‘tyV, ti’, ‘syV’와 같은 음절구조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한 음운 특징은 적어도 80세 중반 이상의 극소수의 육진방언 화자에게서만 나타난다. 뿐만 아니라 러시아어 영향으로 다음과 같은 음운 변이가 발견된다. 언어접촉에 의한 간섭(interference) 현상이다.

- (1) 러시아어에는 /w/는 없고 /v/가 있기 때문에, 고려말의 /w/를 /v/로 발음하는 경우가 있다.<sup>24)</sup> 예, vε(으이) vέri s'άonara(으이를 사오너라).
- (2) 러시아어에서 [ŋ]은 /n/의 변이음이다. 시장에서 만난 40~50대 한인들은 동(董) 씨를 ‘돈 씨’, 흥(洪) 씨를 ‘흔 씨’이라고 발음하였다.<sup>25)</sup> 예, sansenat'a(〈상세나다(상스(喪事)+이+나다. 돌아가시다).

23) 필자의 2, 3차 조사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대체로 손아래 친족에 대해서는 이름을 부른다.

24) J.R.P. King(1995), 이기갑 외(2000), 나라리사(2002)도 그러한 예를 소개하고 있다. 이는 Weinreich(1953)이 제시한 음간섭의 유형 중에서 음대치(phonic substitution)에 해당한다.

25) Weinreich(1953)의 유형 중에서 불완전구별(underdifferentiation)에 해당한다.

- (3) 어말이나 자음 앞의 'ㄹ'을 [l] 또는 [r]로 발음하는 경우가 많다.
- (4) 60대 이하 세대에서는 'ㅅ'뒤에서 'ㅣ'가 현저히 [l]로 들린다.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어말이나 자음 앞 위치의 'ㄹ'이 [r]로 조음되는 것인데 육진방언을 구사하는 제보자에게서 현저하다.<sup>26)</sup>

## 2) 문법

대체로 함북방언의 특징을 그대로 지니고 있으나 상대경어법의 등급이 축소되는 등 러시아어의 영향도 보인다.

## 3) 어휘

고려말 어휘는 함북지역의 방언이 주종을 이룬다. 그런데 사회·문화가 발전함에 따라 신어의 등장은 필연적이나 이를 고려말로 대체할 기관이나 교육 수단이 전혀 없으므로 새로운 개념어들이나 문명어들이 러시아어로 대체되어 쓰이는 경우가 많다. 그리하여 상당수의 러시아어 어휘가 일상적으로 고려말과 함께 쓰인다. ‘꿀까치기’(자치기) 따위와 같은 混種語도 보인다. 북한어의 영향도 있으나 그리 크지 않다.

나느 영게셔 오뻬라찌르 했소(나는 여기서 수술을 했소).  
나느 재비르 과찌라르 쌌소(나는 내 자신이 아파트를 샀소).

위 예문의 ‘오뻬라찌(operat!)’는 ‘手術’을 뜻하는 러시아어이고, ‘과찌라(kvartira)’

26) J.R.P. King(1987)의 현지 조사 내용에 처음 소개된 바 있다. 한편, 러시아의 카잔에서 간행된 문헌자료에는 자음 앞 또는 휴지 앞의 'ㄹ'이 모두 [r]로 전사되어 있다. 카잔 자료가 아닌 러시아에서 간행된 문헌자료에도 이러한 전사를 볼 수 있다(J.R.P. King, 1988:295~6). A.A. Xolodovich(1954:9~10)에도 'Fonetika severnyx dialektov'(북부방언의 음성)이라 하여 한국의 북부방언에 이와 같은 조음 특징이 있음을 밝히면서, “한국어 북부방언은 고대 한국어의 음성체계를 지니고 있고 이러한 점 때문에 한국어의 역사를 연구하는 데 특별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하였다.(필자譯) 그런데 이러한 기술 내용은 G.J. Ramstedt(1928:9)에도 있어 이의 영향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한다.

는 ‘아파트’를 뜻하는 러시아어이다. 새로운 러시아어를 고려말로 대체하여 보급하는 기관이나 고려말을 교육하는 기관이 없으니 이처럼 직접 차용하여 쓸 수밖에 없다.<sup>27)</sup>

#### 4) 기타

수사에서 10,000을 ‘열 천’, 100,000은 ‘백 천’이라 하는데 이는 러시아어식 표현 방식이다.

고려말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는 대체로 고려말을 단순히 ‘육진방언’과 ‘비육진방언’(흔히 ‘길주·명천 방언’으로 부름)으로 미리 상정한 다음 그 중에서 ‘육진방언 화자’를 확인하고 그 언어적 특징을 기술하는 차원의 연구였다. 그러나 고려말이 갖는 다원적 성격—다양한 지역방언이 혼재 또는 혼합되었다거나 장기간 러시아어와 접촉하면서 독자적으로 변화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단순히 ‘육진방언’이나 ‘길주·명천 방언’이니 하고 이분법적으로 논단할 일이 못 된다. 어떻든 고려말은 사회언어학적 방면에서의 연구가 중요하고 또 시급하다. 그러나 아직까지 사회적 변인들(social variables)을 고려한 연구 또는 이중언어 사용(bilingualism)의 면을 연구한 논문은 보기 어렵다. 거주 지역 유형(도시와 농촌, 집거지역과 산거지역 등), 연령, 성별, 교육, 사회적 교류망(social networks) 등을 고려한 사회언어학적 연구가 심화되어야만 고려말의 실상도 드러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연구는, 농촌과 도시 또는 집거지역과 산거지역의 차이, 이주와 동시에 대부분 국영농장이나 협동농장에서 전통 문화를 보존하면서 살던 한인들이 50년대에 들어서서 주거 이전의 자유가 주어져 도시로 이주함으로써 점차 고려말을 상실하고 러시아어로 동화되는 과정, 그 과정에서의 고려말의 위상 변화와 내부 변화 등을 보여줄 것으로 생각된다. 사회언어학적 연구가 수행되면 실증적이고도 구체적인 고려말 사용 실태가 잘 드러날 것이다.

---

27) ‘오뻬라찌’는 일시적으로 빌어와 쓰는 말이 아닌 직접차용어이다. 1994년 필자의 조사에서 몇몇 제보자로부터 청취한 바 있는데, 나라리사(2002)에서도 나타난다. 러시아어 단어를 빌어 쓰는 이러한 예는 고송무(1990:128)에도 소개되어 있다.

## 2.2. 고려말의 변화

지금까지 시기별로 고려말의 특징을 간단히 기술하였다. 여기서는 2.1에서 논의한 내용과 필자가 세 차례에 걸쳐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고려말의 변화 과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 2.2.1 개별 방언들간의 통합

현재 대다수의 한인들이 사용하는 고려말은 과연 어떤 방언이 중심이 되어 어떠한 과정을 거쳐 변화한 것일까. 2.1에서 본 바와 같이 20세기 이전에는 육진방언이 연해주 한인 사회의 주류적인 방언이었는데 20세기에 들어 서서는 상대적으로 그 지위가 약화되고 비육진 함북방언이 주류를 형성하게 되었다. 그것은 개별 방언들 사이에서 어느 방언이 ‘수적 우위’를 차지하였는가에 따라 결정된 것이다. 이 같은 고려말의 변화에는 자못 복잡한 언어 외적 요인들이 개재되어 있다. 이에 대한 연구는 한 언어가 그것이 처한 특수한 환경과 어떤 관련을 맺고 변화하는가—특히 고려말처럼 여러 지역방언이 뒤섞이고 또 다른 언어와 접촉하면서 진행된 *koiné* 형태로의 변화<sup>28)</sup>—하는 궁금증을 해소시켜 줄 수 있을 듯하다.

현재의 고려말은 함북방언을 기반으로 하되 그 하위 지역어의 언어적 요소들이 서로 뒤섞이는 과정을 거쳐 형성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koiné*로의 발달 가능성을 상정할 수 있다. *koiné*는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보인다(Asher: 1994).

- (1) *koiné*를 발생시키는 사회역사언어학(socio-historical linguistics)적 요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한 언어에 속한 여러 지역방언 화자들이 한 곳에 모여 사는 것이다.

---

28) J.R.P. King(1992:202)에서 *koiné*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지만 “Tashkent *koiné*”라는 용어를 사용한 바 있고, J.R.P. King(2003)에서는 구두 발표를 통해, 고려말이 그러한 성격을 갖고 있을 것임을 언급한 바 있다. 그리고 Pak(2001, 2004)에도 그러한 논의가 있다.

- (2) 최초에, 각 지역방언 화자들이 서로 적응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koiné*가 형성되었을 것인데, *koiné* 형성의 초기 단계에서는 각 지역 방언 화자들의 사회적 신분이나 지역성, 그들의 역할 따위와 같은 비언어적 요소들은 관여하지 않는다. 두드러진 변이 요소들은 유지되는 반면, 소수의 변이형들은 적응 과정을 거친다. 규칙적인 형태들은 화자들에 의해 습득된다. 더 많이 출현할수록 생존할 확률은 높아진다.
- (3) 누가 누구에게 적용하며 그 과정에서 어떤 형태가 경쟁에서 승리하는가를 결정짓는 요소는 어떤 방언 집단이 수적으로 우세하며, 또 방언 집단들 사이에서 어느 집단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relative prestige of groups)를 갖는가 하는 점이다.
- (4)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형성되는 언어적 요소는 그 다음 세대 어린이의 언어 학습을 통하여 *koiné*로 발전한다.

대체로 위와 같은 *koiné* 과정을 염두에 두면서 현재의 고려말의 형성을 논의해 보기로 한다. 편의상 육진 출신인을 'A' 그리고 그 방언을 'Ad', 육진 외의 함경도 출신인을 'B' 그리고 그 방언을 'Bd', 중부 지역을 비롯한 기타 지역의 출신인을 'C' 그리고 그 방언을 'Cd'라 하기로 하자.

2.1.1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초기 이주민은 대부분 러시아에 인접한 육진 지역 출신인(=A)이었다. 러시아의 Kazan에서 간행된 문헌자료의 한국어가 육진방언으로 써어진 것이 그 적극적인 증거임은 앞서 밝힌 바 있다. 그리고 2.1.2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10년을 전후해서는 국권상실로 B, C가 급격히 증가하였고 이 때 언어변화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교육 및 언론 매체도 증가하였다. 따라서 고려말의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변인 중에서 '출신 주민의 수'와 '주거 형태'가 영향력이 가장 크고 또 B가 A보다는 상대적으로 권위를 가진 방언이므로 A와 B가 혼거하는 상황에서는 A의 어린 세대는 점차 Bd의 영향을 받기 시작했을 것이다. 그러나 A가 동향 출신인의 집단에서 성장하였다면 모방언인 Ad를 유지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C는 동향인 집단을 이루기 어렵고 또 수적으로도 가장 열세였으므로 Bd에 점차 동화되었을 것이다. 요컨대, A, C는 연령에 따라 Bd에 동화되는 속도가 달라서 젊은 계층일수록 빨리 동화되고 나이 든 계층일수록 모방언을 유지하는 경향이 높았을 것이다. 이렇게 A, C는 자신들의 방언과 차이를 보이는 'Bd'의 방언 특징을 배워 익히고 또 연소한 계층은 Bd의 문법을 습득함

으로써 점차 koiné로의 발달이 시작되었을 것이다. 다만, 여기서 유의할 것은 제1기에는 Bd가 Ad의 영향을 다소간 받았을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제2기의 Bd는 순수한 비육진 합복방언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Bd1이라 부르기로 한다. 그런데 이 시기는 많은 사람들이 주로 농촌에 거주하였으므로 맨 먼저 거점을 확보하고 농업에 종사하였던 A의 경우는 큰 변화가 없었을 것이다. 어떻든 고려말의 변화 과정을 이렇게 가정하면 이는 mixing이나 mingling의 형태가 아니라 여러 개별 방언 중에서 어느 한 방언이 주축이 되고 다른 방언은 여기에 흡수되는 형태가 된다. 이것이 타당한지의 여부는 아래 조사 자료를 살피면서 검토해 보기로 한다.

1937년의 강제 이주는 koiné의 동기 부여가 되는 (1)의 단계를 인위적으로 만든 결과를 낳았다. 이주 전에는 이질적인 방언 화자들 간의 접촉이 적었지만, 이주 후에는 집단농장에서 뒤섞여 살게 된 것이다. 이 결과 개별 방언 화자들 간의 상호 접촉으로 방언 간의 수평화 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 시기는 러시아어의 간섭이 미미하던 때였고, 또 집단농장에서 살면서 자신들의 언어와 문화를 유지하던 때였다.<sup>29)</sup> 연해주 시절 거주지, 출신지, 직업이 달랐던 한인들(A, B, C)이 한 곳에 정착하여 살게 됨으로써 자기의 방언과는 차별되는 다른 지역 방언에 서로 적응하는 단계를 갖게 된 것이다. 이때 Ad, Bd가 공유한 음운·문법 규칙, 어휘는 존속되고 다만 일정한 차이를 보이는 언어적 요소들만이 상호 조정되는 과정을 갖게 되었다. 상호 공통적인 요소들은 유지되고 차이를 보이는 요소들은 적응 과정을 거치면서 몇 가지 원칙에 따라 통일되기 시작했다.

koiné의 과정에서 위 (3)을 고려해 보면, 출신지의 수적 우세는 B>A>C의 순, 우월한 지위는 Cd>Bd>Ad 순이다. 고려말 화자들의 언어태도(language attitude)를 통해 그와 같은 순위를 상정할 수 있다. 예컨대, 채안나 할머니는 자신이 말하는 육진방언은 ‘탁한말’, ‘무식한 농촌말’이라 폄하하였다. 그리고 “한 사말리치 할머니는 자신이 쓰는 고려말(육진방언)을 남들이 ‘잘못 배운 고려말’이라고 하는 바람에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말을 하지 않으려 한

---

29) 현재 50대의 장류드밀라 교수, 김유라 씨의 증언에 의하면 그들이 우슈토베의 집단농장에서 살면서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는 러시아어를 몰랐다고 하였다.

다.”라고 한 점도 그 한 증거가 된다(이기갑·김주원 외: 2000: 12). 이러한 Ad 화자들의 모방언에 대한 태도는 중국 조선족들도 매 한가지이다. 육진방언을 밀하는 조선족은 자신들의 말이 ‘왠 쌩트럽운 말(가장 상스러운 말)’이라 비하하기 일쑤이다. 또 말을 하면 다른 방언 화자들에 의해 ‘놀기우기(놀림을 당하기)’ 때문에 공식적인 자리 또는 외지인과 만나는 자리에서는 가급적 자신의 방언을 쓰지 않으려 한다고 말한다. 위 채 할머니도 이와 동일한 말을 한 바 있다. 이렇게 육진방언 화자들은 모방언을 궁벽진 시골말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20세기 이후 다른 방언권의 화자가 급증하고 그들과의 접촉이 증가하면서 이러한 언어태도가 형성된 것이다. 이로 인하여 육진방언 화자의 표준어 지향성은 무척 강하다. 자신들이 말하는 육진방언을 이렇게 ‘잘못 배운 것’이라 하거나 ‘왠 쌩트럽운 것’이라거나 또는 ‘놀기우는 대상’이라 하는 것은 육진방언의 보수성과 이질성 때문이다.

### 2.2.2 고려말과 관련된 개별 방언의 특징

#### 1) 함북방언

함북방언(육진방언, 비육진방언)의 공통 특징은 다음과 같다.

##### (1) 문법적 특징

- ① 대격중출문. 예: 내 아르 고기르 주었소(내가 아이에게 고기를 주었소). 내 아르 우티르 납히오(내가 아이에게 옷을 입히오).
- ② 부정 부사 ‘아니’나 ‘못’이 합성동사의 어기 사이나 또는 본용언과 보조용언 사이에 놓인다. 예: 여기르 떠 못 나오(여기로 못 떠나오). 경계선 이런 거 먹어 못 보오(거기서는 이런 것을 먹어 보지 못하오).
- ③ 접미사에 의한 피·사동사 파생이 중부방언에 비해 생산적.
- ④ 상대경어법의 체계는 ‘하압소-하오-해라’의 세 등급. 존대의 선어말어미 ‘-사’가 쓰이지 않으며 대신 청자존대의 선어말어미 ‘-읍-/습’이 두루 쓰인다.
- ⑤ 주격조사 ‘-가’가 없으며, 격조사 및 보조사의 형태가 특이. 예: 대격의 경우 -으/-르 등.

- ⑥비자동적 교체를 보이는 어간이 많다. 예: 나무/나-木, 여스-/여-狐  
 ⑦중부방언에서 ‘ㅅ’ 및 ‘ㅂ’ 불규칙 활용을 하는 어간이 규칙 활용을 한다.

## (2) 어휘적 특징

고형이 다수 잔존해 있지만 그와 반대로 이 방언권만의 독특한 어휘도 많다. 특히 친족명칭이 그러한데, 함북방언은 부계친과 모계친을 구분하지 않는 독특한 체계를 갖는다.<sup>30)</sup> 아래 예를 보자.

맏아바니(맏아바이)	
부계	모계
아버지의 형(큰아버지)	어머니의 오라버니(외삼촌)
아버지 누님의 남편(고모부)	어머니 언니의 남편(이모부)
비친족 : 아버지보다 손위의 사람을 친밀하게 부를 때	

위 문법·어휘적 특징은 함북방언과 고려말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므로, Ad, Bd 간의 통합 과정에서 규칙적으로 수용되었을 것이다.

## 2) 개별 방언들 사이의 주요 방언차

2.2.1에서 제시한 고려말의 변화 과정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검증하기 위해서는 육진방언(=Ad), 비육진방언(=Bd), 중부 및 기타 방언(=Cd)의 차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Ad, Bd, Cd의 차이를 음운·문법으로 나누어 몇 예를 보면 아래와 같다. 육진방언의 특징은 20세기 초의 육진방언(곽충구: 1991/1994)과 오구라 신페이(1927)의 조사 내용을 발췌한 것이고 비육진방언 자료는 오구라 신페이(1944)를 참고한 것이다.

30) 위 특징 외에 순수고유어로 된 친족명칭이 많다는 점, 서열을 나타내는 접두요소가 특이하다는 점 등을 더 지적할 수 있다(곽충구 1993).

표 1. Ad, Bd, Cd의 방언차

항목	육진방언(Ad)	비육진합복방언(Bd)	중부방언(Cd)
(1)	8 모음체계 /i, e, ε, ɪ, ə, a, u, o/	10 모음체계>8 모음체계 /i, e, ε, (ü), (ö), ɪ, ə, a, u, o/	
(2)	자음체계 : ㅈ(=/ts/)	ㅈ(=/tʃ/)	
(3)	ㆁ>오, ㆁ>아	ㆁ>아	
(4)	tyV, ti	tyV>čV, ti>či	
(5)	syV	syV>sV	
(6)	#nyV(또는 nyV>nV), #ni	#nyV>yV, #ni>i	
(7)	#kyV, #ki	#kyV>čV, #ki>či	#kyV, #ki
(8)	-g-, -s-, -b-		-ø-, -ø-, -ø-
(9)	VŋV>vŋ	VŋV>vŋ, Vni>vŋi~vi	VŋV, Vni
(10)	스, 즈, 츠		시, 지, 치
(11)	-읍꾸마	-읍꾸마, -읍메 -오다	-ㅂ니다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Ad는 Bd보다 음운규칙의 수가 현저히 적다. 치음 다음에 이중모음의 연결이 자유롭다는 점이 한 특징이다. 음소의 배열이나 음절구조가 초기 근대국어에 가깝고 문종결어미가 특이하다. [표 1]에 제시한 방언차를 통해 고려말의 변화 과정을 논의하기로 한다.

### 2.2.3 현지 조사 자료를 통한 변화 과정의 추적

#### 1) 1차 조사

필자는 1994년 7월에 아래 13명의 제보자로부터 고려말을 조사한 바 있다(나이는 1994년 조사 당시). 고려말을 자유롭게 구사하지 못하고 先代의 원적자를 잘 모르는 제보자를 D라 부르기로 한다. 70세 이상이 3명, 60대 1명, 40대 중반 2명. 나머지는 30대에서 40대에 걸치는 한국어교육원의 교육생이었다.

- A=박세르게이(박수옥, 81세, 남, 조부 때 함복 慶源에서 연해주로 이주)  
 B=허씨(73세, 여, 조부 때 함복 吉州에서 연해주 하싼으로 이주, 노동 영용)  
 C=김빅터(73세, 남, 조부 때 강원도 高城에서 연해주로 이주)  
 D=김 씨(64세, 여), 리로먼(46세, 남, 기사), 한조야(45세, 여, 의사), 이다비드  
 (남, 기업가), 김라리사(여, 기사), 김율리아나(크즐오르다, 대학생), 김넬라(여,  
 교사), 유엘레나(여, 기사), 김엘레오노라(여), 김류드밀라(여, 교사)

위 [표 1]의 조사항목과 위 제보자 13명에 대한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모음체계 : A는 8모음체계, B와 C는 10~9모음체계. 나머지 10명 (=D)은 8모음체계. A, B는 모방언을 유지하고 있으며, B와 C는 /ü/, /ö/가 동요하여 단순모음으로 실현되기도 하고 때론 이중모음으로 실현된다.<sup>31)</sup>
- (2) 'ㅈ'의 조음위치 : A는 두 변이음 [ts]와 [tʃ]로 나타남.
- (3) ㆁ>오 : 모든 제보자에게서 변화 예가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A에 속하는 종성, 온성, 회령, 경원에서는 'ㆁ>오'(원순모음화)를 보여준다.<sup>32)</sup> 예: 물>몰(馬), 불>풀(肺), 몯아바니>몰아바니(伯父), 몯아매>몰아매(伯母), 무디>모디(節), 무슨->모수-(碎), 벌르-/\*불가서>보르-/붉아서(剝). 그러나 고려말에는 이러한 예들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단, '붉-(<��-踏>)'는 함복 전역에 분포하는데 고려말에서도 나타난다. 육진 지역의 하위 방언에서 볼 수 있는 원순모음화형이 'ㆁ>아'를 겪은 방언형으로 대체된 것이다. 소수의 이질적 어휘 요소들이 적응 과정을 거치면서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sup>33)</sup>
- (4) t구개음화 : A를 제외한 모든 제보자가 변화형을 구사. 다만, A도 소

31) 육진방언에서 '외'는 [we]로, '위'는 [uy], [wi]로 실현되었다. 현재의 육진방언(중국 조선족)에서도 '외'는 [we]로 실현되지만, '위'는 선행자음이나 음절 위치에 따라 [u], [i], [ü]가 나타나기도 한다. 한편 비육진 합경도방언에서는 '외'와 '위'가 /ö/, /ü/로 실현된다. 이러한 모음체계의 차이는 육진방언과 비육진방언을 구분하는 주요한 척도가 된다.

32) 이 변화는 두만강 상류에 위치한 회령, 종성, 온성에서는 예외 없이 이루어졌으나 하류쪽으로 갈수록 그 개신의 정도는 미약해진다. 개신이 두만강의 상류에서 하류쪽으로 어휘에 따라 점진적으로 확산된 것이다. 그리하여 같은 육진방언권 내에서도 경홍지역에서는 '붉-'만이 나타난다.

33) 육진방언권 내에는 'ㆁ>오' 외에도 '돛다∞돛다'(好), '따르다∞따르다'(短) 따위처럼 치음 뒤의 활음 y 탈락 여부에 따른 차이도 있는데, y 탈락형은 고려말에서 발견되지 않는다.

수이기는 하나 ‘췌선’(<묘선, 朝鮮), ‘제일’(<폐일) 및 ‘벌어지다’(<벌어디다, 뻔 어나가다), ‘갈가지다’(<갈가디다, 갈라지다), ‘번디지 못하지’(<번디+디, 번역 하여 말하다)에서 보듯 ‘-디다’와 어미 ‘-디’에서 일부 개신형이 보임.

(5) A만이 syV와 sV의 대립을 보임. 그러나 A도 ‘-에서’-‘에서’로 나타남.

(6) A만이 nyV와 nV의 대립을 보임. 그러나 A도 ‘옇다’(<넣다), ‘아니’아이’와 같은 몇 예에서 개신형이 보임.

(7) k-구개음화 : A와 D의 한조야만이 보수형을 씀. 나머지 11명은 모두 개신형만을 씀. 예, 짐치, 질굼이, 질굼채, 지슴맨다, 지다리다, 제(様), 질(道) 등. Bd는 k-구개음화를 겪은 방언이다. 현재의 고려말은 예외가 발견되지 않을 정도로 k-구개음화 개신형이 지배적이다. 짊은 충이 구사하는 고려 말이 Bd의 방언 특징으로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8) 어중자음 : 제보자 모두 어중자음 유지형을 씀.

(9) 비모음화 및 비음 탈락 : A만이 Ad의 특징을 보임. 나머지는 Bd의 특징을 보임.

(10) 변화 없음. 그러나 D에서 질거가다(<즐거가다, 질러가다), 아지바이(<아즈바이)가 나타난다. 이것은 고려말 내부에서의 변화이다. 현재의 함북 방언에서는 이러한 구개모음화 현상이 발견되지 않기 때문이다.

(11) B와 D의 이로만 씨만이 ‘-오다/-소다’ 형을 씀. 나머지는 ‘-꾸마’.

(12) 어휘 : 중국의 함북방언에서 쓰이지 않는 ‘불술기, 부술기’(기차), ‘생질(생일)’이라는 말이 흔히 쓰인다. 또한 ‘량고’(제기), ‘꿀까치기(자치기)’처럼 러시아어로 대체된 경우나 혼종어도 나타난다.

위와 같이 A를 제외한 모든 제보자는 Bd와 가까운 방언 특징을 보인다. A, B 두 고령자만이 모방언을 유지하고 있다. 강원도 고성 출신인 김빅터 (=C)씨가 말하는 고려말의 음운·어휘·문법적 특징은 Bd였다. 이미 Bd에 동화된 것이다.<sup>34)</sup> 50대 미만의 연령층은 모두 Bd1로 나타난다. C, D의 극히 일부가 Cd, Ad의 혼적을 보인다. Bd1을 구사하나 아직 Cd, Ad의 잔재

34) 그 예의 일부가 곽충구(2000a)에 소개되어 있다. ‘B’의 할머니는 ‘외’를 [we]로 발음하는 경우가 많았다.

가 남아 있다.

D가 구사하는 고려말은 대체로 Bd1과 같다. 고려말의 일상적 구어를 채록한 니라리사(2002)의 예문<sup>35)</sup>도 그와 동일하다. 니라리사의 논문에 등장하는 많은 예문은 고려말의 실상을 이해하는 데 좋은 자료라 생각되는데, 이 논문 및 필자의 조사에서 고려말의 문 종결어미는 육진방언의 그것과 대체로 일치하지만, 음운 특징은 Bd1과 같다.<sup>36)</sup> 이는 Bd1이 Bd에서 발전한 것일 수도 있지만 육진방언에서 발전한 것일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밀하자면, 육진방언에 Bd의 음운규칙(구개음화 등)이 적용되어 Bd1로 발전하였을 개연성이 있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어휘의 경우는 육진방언과 비육진방언이 그리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 Bd1의 어휘가 어떠한지 말하기 어려운데, 친족명칭<sup>37)</sup>은 대체로 육진방언의 그것과 일치하되 그 음운 특징은 Bd와 같다. 예컨대,

	육진	길주 · 명천	고려말
조부	아바니, 쁘(클)아바니	큰(클)아빠	큰(클)아바이, 아바이
백부/외숙 <sup>38)</sup>	맏(돈)아바니	맏아빠	맏아바이
고모/이모 <sup>39)</sup> /숙모	아재	아지미	아재, 아지미
숙부/이모부/외숙 <sup>40)</sup>	아즈바니	아재비	아즈바이, 아자바이, 아디바이

현재의 고려말 친족어휘는 함경도방언에서 볼 수 있는 체계—부계친과 모계친을 구분하지 않는—to 그대로 유지하고 있지만 개별 친족명칭은 일정한 변화를 겪었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휘 자체는 육진방언형이나 그 방언형의 음운특징은 함북방언이다. 즉, 육진방언형 ‘아즈바니’, ‘맏아바니’는 각각 ‘아즈바이’, ‘아디바이’,<sup>41)</sup> ‘아자바이’와 ‘맏아바이’로 나타난다. ‘ㅣ’ 모음 앞

35) 카자흐스탄의 한인 집거지역인 우슈토베에서 조사한 자료이다.

36) 니라리사(2002)의 자료 제보자 신원은 아쉽게도 밝혀져 있지 않다. 논문의 필자는 이 고려말을 ‘육진방언’이라 하였으나 Bd1이다.

37) 함북방언의 친족명칭에 대해서는 곽충구(1993)을 참고.

38) 어머니의 오빠

39) 아버지의 여동생/어머니의 여동생.

40) 아버지의 남동생/어머니 여동생의 남편/어머니 남동생.

에서 /ㄴ/이 탈락하는 Bd의 음운특징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Ad가 Bd의 영향을 받아 Bd1이 된 것이다. ‘아디바이’는 過度矯正形으로 Ad와 Bd의 접촉 과정에서 생겨난 산물로 Bd1에 정착한 예이다. Bd1 속에는 Ad와 Bd에서 볼 수 있는 친족명칭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는 Ad와 Bd의 방언형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된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육진방언의 대명사처럼 여겨지는 Ad의 종결어미 ‘-읍꾸마/-습꾸마’, ‘-음둥/-슴둥’이 고려말에 정착하여 널리 쓰인다는 점이다. 이 어미들은 비육진지역인 무산·부령·경성 등에서도 쓰이나 길주·명천에서는 잘 쓰이지 않는다.<sup>42)</sup> B의 길주·명천에서는 ‘-음메다/-슴메다’, ‘-읍지비/-습지비’가 주로 쓰인다. 그러면 어찌하여 A의 ‘-읍꾸마/-습꾸마’, ‘-음둥/-슴둥’이 쓰이게 된 것일까? 이는 이들 어미가 육진 및 그 외곽 지역에서 쓰인 탓도 있지만, 현재의 고려말이 기본적으로는 육진방언에 그 터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보인 어휘(친족명칭)에서도 그러한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따라서 Bd, Bd1을 흔히 ‘길주·명천 방언’이라 부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요약하면 노년층의 A, B는 대체로 모방언을 유지하고 있고 그 아래 세대

41) 광범위하게 쓰인다. 필자의 조사, 나라리사(2002), 고려일보가 조사한 친족명칭 자료에도 보인다.

42) 오구라(1927)에서는, “경성 이북은 ‘-꾸마’를 쓰며 ‘-ㅁ메’를 쓰는 일이 없고, 명천·길주 이남은 ‘-ㅁ메’를 쓰며 ‘꾸마’를 쓰는 일이 없다. 경성(鏡城)과 명천(明川)과의 사이에 분명히 경계선을 그을 수 있는 것은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다.”라고 하여, ‘-꾸마’의 분포 지역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함경도 방언을 조사·연구한 정용호(1988), 황대화(1986)에서도 오구라와 비슷한 보고를 볼 수 있다. 황대화(1986:112)는 “『<꾸마>와 『꼬마』는 방언 지역에 따라 쓰이는 폭이 다르다. 육진방언에서는 그것들이 전지역적으로 쓰이고 있으나 함북방언에서는 부령과 경성을 비롯한 부분적인 지역에서만 쓰이고 있을 뿐이다.”라고 하였다. 한편, 정용호(1988:230)은, “이 방언에서 높임의 말차림으로서 가장 많이 쓰이던 『~ㅁ메다』, 『~ㅁ미다』, 『~ㅁ네다』는 오늘 그 쓰이는 범위가 점차 좁아지면서 함경남도 홍원군, 북청군, 리원군, 덕성군을 중심으로 하고 함경북도에서는 김책시, 길주군, 명천군 일대에서 주로 쓰이게 되었으며 ….”라고 하여 학성·길주·명천 등 함북 남부 지역에서는 ‘-ㅁ메다’가 쓰이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필자는, 고려말에 대한 필자의 수차례의 현지조사는 물론이거니와 지금까지 보고된 고려말 조사 자료에서 ‘-읍메/-습메’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아직 발견하지 못하였다.

는 Ad의 요소를 바탕으로 하고 Bd의 음운 특징이 가미된 고려말(Bd1)을 사용한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좀더 부연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70대 이상 3명의 자료를 검토해 보면, 육진지역 출신 화자(A)는 1세기 전 러시아의 카잔에서 간행된 육진방언 자료와 거의 동일한 자신의 모방언을 유지하고 있었고, 또 함북방언 화자 B는 Bd의 특징을 거의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화 진행 중에 간혹 러시아어를 사용하거나 질문시 러시아어 통역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었다. 어떤 사물이나 개념을 러시아어로 사고하고 이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이는 이중언어사용자(bilingual speaker)가 발화 상황에 따라 다른 언어로 바꾸는(code-switch) 경우에 해당한다. 이는 이미 고려말로 어떤 대상이나 개념을 표현하기에는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그만큼 러시아어에 동화된 것이다. 이 동화의 정도는 연령에 비례하여 40대 이하(현재 50대 이하)에 이르면 고려말을 거의 상실한 것으로 나타난다.

집단농장에서 언어습득기를 보낸 사람들은, ① B 집단이 수적으로 우세하였고, ② A는 모방언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으며, ③ Bd는 한인들이 지향하는 표준어와 가까운 음운 특징을 지니고 있었으므로 A의 아래 세대는 B의 음운규칙을 배워 억혀 고려말은 Bd의 음운 특징을 갖게 된 것이다. 한편, 수적으로는 Bd가, 우월적 지위는 Cd가 가장 앞섰지만<sup>43)</sup> Cd가 Bd로 변화한 것은 C 집단이 수적으로 적은 데다가 동향인들끼리 집단을 이루지 못하였기 때문이며 또 Cd가 상대적으로 이질적인 방언이었기 때문이다. 고려말의 변화에 작용한 변인 중에서 ‘집단의 사람 수’, ‘주거 형태’가 절대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

43) Cd가 우월적 지위를 가졌다고 한 것은 일부 제보자의 견해를 따른 것이다. 그러나 서울을 제외한 충청, 황해 방언이나 또는 서북방언으로 일컬어지는 평안도 방언은 그렇지 않다. 또 중국 조선족의 어떤 이는 ‘서울말’이 표준어이기는 하지만 가벼운 인상을 주고 간사스럽기까지 하다는 말을 하기도 한다. 합경도 방언이 아닌 ‘남녘의 말’을 흔히 ‘앞댓말’이라 부르는데 이 말속에는 약간 부정적인 뜻도 내포되어 있다.

2) 2·3차 조사<sup>44)</sup>

다음에는 2004년 실시한 2·3차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현재의 고려말은 어떠하고 몇몇 사회적 변인을 고려하면서 고려말의 형성 과정을 더 살펴보기로 한다. 제보자는 아래와 같다.

고유 번호	이름	나이 /性	先代 居住地	출생지	移住 代數	교육 정도	방언	구사 정도	비고
①	채안나	88/여	A(경원)	Y수청	3	초등	Ad	상	
②	김마리아 (초명김금줄)	84/여	A(경홍)	Y이만	3	초등	Bd	상	
③	김원희	82/남	C(강원도 속초)	속초	1	고졸	Bd1	상	
④	유가이	74/남	모름	Y	3	고졸	Bd1	중	
⑤	최조야	74/여	모름	Y	3	초등	Bd1	중	
⑥	최라이사	66/여	모름	우즈베키스탄	모름	대졸	Bd1	하	
⑦	정소웨야	64/여	모름	카자흐스탄	모름	대졸	Bd1	하	
⑧	김유라	51/남	C(속초)	카자흐스탄	2	대졸	Bd1	하	

(Y=연해주)

위 표는 나이가 많을수록 모방언을 쓰는 경향이 짙고 연령이 낮을수록 Bd1을 쓴다는 점과 60대 이하는 대체로 모국어를 구사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1차 조사와 같다. 먼저 제보자들을 개별적으로 검토하고 이어 고려말의 형성 과정을 논의하기로 한다.

①과 ②는 모두 先代가 육진방언권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대조적이다. 즉,

44) 2차 조사는 2004년 10월 16~17일에, 3차 조사는 12월 21~26일 사이에 알마아티에서 이루어졌다. 조사에 도움을 주신 박넬리 교수, 장류드밀라 교수에게 감사 드린다. 3차 조사는 김주원 교수의 호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바 김 교수께 감사를 드린다. 김 교수는 알마아티에 체류하면서 광범위하고도 정밀하게 고려말을 조사하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①은 전형적인 Ad를 구사하는 반면, ②는 Bd를 구사하였다. ②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친가와 시가 사람들이 모두 육진방언권 출신인데 Bd를 쓰는 것이 흥미롭다. 그런데 ①은 Bd 화자처럼 ‘외’를 [ö]로 조음하기도 하였다. 1세기 전의 육진방언 자료나 현재 중국의 육진방언 화자에게서는 볼 수 없는 특이한 현상이다. 예: óčhime-ri(외치마-를, 훌치마), chöge(崔哥). 반면, Bd를 구사하는 ②는 육진방언(=Ad)처럼 ‘외’는 [we]~[e]로, ‘위’는 [wi], [ui]로 발음하기도 하였다. 예: 새다(〈쇠다. 설을 ~〉), 대다(〈되다. 升〉). 또 그 예가 아주 적기는 하지만 ‘취석’(čhusyégi, 秋夕), ‘설새’(泄瀉), ‘이상 사람’(손윗 사람)에서 보듯 Ad의 특징인 -syV- 음절구조도 보여준다. 이렇게 Bd 화자에게서 Ad의 요소가 간혹 나타나는 것은 ②가 본디 先代의 방언인 Ad를 쓰다가 점차 Bd의 음운규칙을 배워 익혀서 Bd를 구사하게 되었음을 말해 준다. 그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즉, Bd 화자가 수적으로 우세하고 또 우월한 지위를 가졌기 때문에 Bd 화자가 Ad를 구사한다는 것은 있기 어렵고 또 그러한 예도 달리 발견되지 않기 때문이다. ②는 모방언의 혼적을 마치 화석처럼 이러한 형태로 남기고 있다.

③도 그러한 면에서 볼 때 아주 흥미롭다. ②가 Ad>Bd 화자라면 ③은 Cd>Bd1 화자이다. ③은 강원도 高城郡 束草 출생으로, 해방 후 잠시 서울에서 머물렀던 경력도 지난 사람으로, 26세가 되던 1947년에 연해주로 이주하고, 이어 1953년에 카자흐스탄의 우슈토베에 정착한 사람이다. 언어습득기를 고향에서 보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聲調를 포함 전반적으로 Bd1을 구사하였다.<sup>45)</sup> 이 사람이 처음 이곳으로 이주하였을 때에는 ‘말’ 때문에 ‘놀림’을 많이 받았다고 한다. 그런데 50여 년이 지난 지금은 완전히 Bd1 화자가 되어 있다. Cd와 Bd1 화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의사소통의 장애를 극복하고 또 이질적인 방언 사용 집단으로부터의 소외나 괴리감을 해소하기 위해

45) 25세 때부터 함경도방언을 접하게 된 셈인데, Bd1을 구사한다. 음운체계 : 8모음 체계. ‘위’는 [kwi](耳), [šú](蠅卵)로 실현됨. 어간말 자음 : 내 살던 [gvi]이느 유즈 노카레이 … . 문법 : ‘다이’(종결어미), -가(공동격 조사. 내가 같이 가오), ‘알아 못 들었어’(부정소의 위치). 어휘 : 후리다/후리우다(휘다).

우슈토베에서는 자신과 자신의 말을 ‘꺼드레’, ‘꺼드레말’이라고 ‘놀게 주었고’ 의사소통이 잘 안 되어 한동안 애를 먹었다 한다.

Bd1에 적응한 결과임은 물론이다.

그런데 ②가 모방언의 잔재를 보여주었듯이 ③ 역시 간혹 모방언의 특징을 보여 주었다. 상대경어법에서 어미 ‘어요’를 쓰는 것이 그 예이다. 또 가끔 중부방언 어휘가 나타났다. 이는 Cd>Bd1의 사례로서 모방언(Cd)을 습득한 이후, 다시 Bd1을 새롭게 배워 익힘으로써 이루어진 변화이다. C가 새로운 방언에 적응하기 시작한 것이 50년 전후인데 C가 그때 새로 배워 익힌 방언은 Bd1이므로 그 무렵 우슈토베에서 말해지던 한국어 방언—그가 적응한 방언—은 Bd1이었음이 분명하다.

④는 모국어 구사가 능숙하지 못하나 전형적인 Bd1 화자이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머짢기[mádɛŋkʰi]’(멀지 않게), ‘읽대닌 거[ikt'ɛníŋgə]’ 등의 예처럼 육진방언의 특징인 ‘-디 아니하-’의 축약형 ‘-짢-’이 나타난다.<sup>46)</sup> 이것이 Ad>Bd1인지 모국어 습득 과정에서 Ad의 요소를 갖게 된 것인지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⑤는 모든 음운 특징이 Bd1이다. 철저하게 k-구개음화, t-구개음화를 경험하여, 해재부리(<해개부리(해갸불이), 해바라기>), 남제(<남데(남녕+이). 男丁>, 지치다(<기티다. 남기다>), 본치(<본테, 축하하기 위하여 보내는 금전이나 물품>) 따위의 예가 나타난다. 그런데 ②처럼 육진방언형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쇠)쇄)새(鐵), 죄)罪(罪). 단, 외아들)웨아들. 또한 간혹 ‘말이 번데서(말이 바뀌어)’, ‘가티(같이)’처럼 t-구개음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방언형을 썼다. 이는 이 화자가 본디 육진방언권 화자(=A)였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부모와 함께 이주해 와서 집단농장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고 그 후 레닌그라드(現, 상크트 뼈쩨르부르크)에서 알마아티로 온 사람이다. 이 사람은 아마도 집거지역에 거주할 때 Bd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된다.

⑥은 ‘위)이’가 현저하다. 전형적인 Bd1 화자이다.

④~⑦의 공통 특징은 첫째, 집거지역에서 살다가 산거지역으로 주거지를 옮긴 사람들이고 둘째, 중앙아시아에 정착하면서 교육의 혜택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라는 점이다. 특히 ⑥, ⑦과 같이 고등교육을 받고 또 전문직에 종

46) [sec'agir] (쇠쪽으로), [segogi] (쇠고기), [peundai] (보이다)의 예에서 보 듯 ‘이’가 [e]로 실현된다. 비육진방언의 특징이다.

사한 사람들은 그러한 사회적 배경 때문에 모국어를 거의 상실하였다. ⑥은 아예 고려말을 배울 기회가 없었던 사람이다. ⑦은 첫 대면에서는 모국어를 거의 구사하지 못하였으나, 얼마 간의 조사 시간이 경과하면서 고려말 구사 정도가 호전되었다. 고려말은 ‘잠자는 언어’가 되어 버린 것이다. ⑦은 특이하게도 ‘yezún’(예순), ‘kazími’(가슴)처럼 모음 사이에서 ‘ㅅ’을 [z]로 조음하였다. 고려말을 거의 상실하고 일상적으로 러시아어를 쓰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 화자는 남제(<남녕이>), 이사르 베워두(의사를 보여도, = 진찰을 받아도) 따위의 예가 보여주듯 전형적인 Bd1 화자이다.

⑧은 강원도 고성 속초 출신인 ③의 아들이다. 우슈토베에서 태어나고 성장한 다음 알마아티에서 교육을 받고 현재 건축업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일상적으로는 러시아어를 구사한다. 다만 부친과 대화할 때에만 가끔 고려말을 쓴다고 하였는데, 필자와의 대화에서도 러시아어를 쓰다가 나중에 고려말을 조금 사용하였다. 아버지와 함께 Bd1을 배워 익힌 사람이다. 아버지는 Bd1에 동화된 사례이고(Cd) Bd1 아들은 Bd1을 습득한 사례이다.

요컨대, 8명 중 1명은 Ad, 7명은 Bd, Bd1을 쓰고 70세 미만의 세대는 *koiné* 형태(=Bd1)의 고려말을 구사한다. 이로 보면 Bd1은 강제 이후에 본격적으로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②와 ③을 보면 이미 연해주 시절에도 그러한 과정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강제 이주가 단행된 1937년부터 한인들은 국영농장이나 협동농장에서 고유한 언어와 문화를 보존하면서 살았다. 1938년에 한국어 교육이 폐지되어<sup>47)</sup> 그 뒤부터 한인들은 규범적인 한국어를 배울 기회가 축소되었으므로 이 시기에 교육 등에 의한 영향은 크지 않았다. 그러다가 50년대에 들어서서 한인에게 주거 이전의 자유가 보장되면서 60년대 이후에는 많은 한인들이 주거지를 도시로 옮기게 된다.<sup>48)</sup> 이때 이주 후로부터 도시로 이주하기까지의

47) 김을가(2001), pp.20~21ff에 의하면, 1938년에 118개 한인학교가 폐교되었지만 50년대 중반까지는 한국어 교육이 이루어졌다 한다.

48) 1959년 통계 자료에 의하면, 농촌에 거주하는 한인은 70% 이상, 1970년에는 41.5%이다. 한편, 1989년 통계에는 농촌 거주 인구가 15.8%이다.(Men, D.V. et al. eds.(1992, p.156.)에서 인용함).

시기에 언어습득기를 보낸 사람들—37년 이주 직후 언어습득기의 연령층(대략 70세 전후)으로부터 도시 이주 인구가 급증하는 60년대 중반까지 언어습득기를 보낸 연령층(현재 50세 전후)—은 한인 사회에서 형성되던 고려말 koiné를 습득하였을 것이다. 이에 의하면, 연해주에서 출생하고 그곳에서 언어습득기를 보낸 사람 중에서 Cd를 제외한 80세 이상의 고령자들은 대체로 자신의 모방언을 적절하게 구사할 수 있다. 50세~70세의 한인들-적어도 집단 농장에서 여러 지역방언 화자들과 뒤섞여 살면서 언어습득기를 보낸 사람들은 고려말 koiné를 사용한다. 그리고 도시로 이주한 가정에서 자라거나 출생한 대략 50세 미만의 한인은 대부분 고려말을 상실하였다.<sup>49)</sup>

위에 의하면 현재 50~70세의 연령층은 도시에 거주하면서 러시아어를 일상적으로 쓸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므로 완전한 이중언어 사용자라 할 수 있지만 고려말을 자유롭게 구사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집단 농장을 떠나 도시에 거주하면서 공식적인 통용어인 러시아어를 쓸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고려말은 가정에서만 쓰이게 되어 그 지위가 크게 약화되었다. 또 대략 50세 미만의 사람들이 고려말을 구사할 수 없는 것은 그들이 러시아어로 공부하고 일상적으로 러시아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성장했기 때문이다. 다만, 한인 집거지역에서 주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사정이 다르다.

### 2.2.5 要約

2.2에서 논의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강제 이주 후 개별 방언 화자들이 집단농장에서 함께 거주하게 됨으로써 본격적으로 koiné 형성의 기반이 마련되고 개별 방언들은 상호 적응 과정을 거쳐 koiné를 형성하기에 이른다. 이때 수적으로 압도적인 Bd가 우월적 지위를 갖게 됨으로써 상대적으로 소수였던 Cd는 Bd로 동화되었다. A의 노년층은 강제 이주 이전의 모방언을 유지하기도 하고 Bd의 음운특징을 갖

---

49) 허승철(1996), p.43에 의하면, 고려말을 모국어로 사용하는 비율이 1959년에는 79.3%에서 1970년 68.8%, 1979년 55.4%, 1989년 47.2%로 점점 축소되었다 한다.

게 되었다.

2) Bd는 본디 합북방언이다. 현재의 고려말은 음운론적 특징으로 보면 Bd와 거의 일치하지만 어휘·문법형태소는 육진방언의 요소도 지니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고려말(Bd1)은 Bd와는 그 성격이 조금 다르다. 예컨대, Bd(길주·명천 방언 등)에서 쓰이는 종결어미 ‘-습메’, ‘-지비’ 따위와 친족명칭 ‘아지미’, ‘아재비’ 따위가 Bd1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는다. 친족명칭은 Ad에 가깝지만 그 음운특징은 Bd와 같다. 그리고 육진방언의 하위 지역에 분포하는 ‘으’ 오 원순모음화형(예: 몬아바니)이나 ‘따르-〉따르’와 같은 변화형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소수의 방언형들은 상호 적응 과정에서 사라진 것이다. 이 Bd1은 1937년 강제 이주 이후에 본격적으로 형성된 것이다. 강제 이주 전에 연해주에서 모방언을 습득한 사람들은 대체로 모방언을 유지하고 있지만, 1937년 전후에 언어습득기를 보낸 사람들, 또는 그 이후에 이주한 중부방언 화자가 Bd1을 말하는 것이 그 적극적인 증거이다. 현재 60대 이하 세대는 대체로 강제 이주 후에 Bd1을 모방언으로 습득한 사람들이다. 때문에 개별 화자들이 구사하는 Bd1을 미시적으로 관찰해 보면 Ad의 잔재가 남아 있기도 하다. Bd1은 Bd에서 볼 수 없는 구개모음화 등도 보여 준다.

3) 따라서 Bd1은 *koiné*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Bd1은 일반적인 *koiné*처럼 하나의 독립된 언어로 발전하여 공용어로 쓰이는 언어는 아니다. 또한 Bd1은 그 내부에 러시아어의 요소를 상당수 지니고 있고 현재는 사멸할 처지에 놓여 있다. 이런 점들에서 Bd1을 *koiné*라 하기는 어렵다. 다만 *koiné*의 과정을 밟아 형성되는 단계에서 그 운명을 다하게 된 것일 뿐이다.

4) 나이에 비례하여 모국어 구사 정도가 현저히 떨어진다. 여기에는 연령, 주거지역의 형태, 교육 정도 등의 변인이 관여한다. 50대라도 집거지역에 오래 거주했거나 거주하는 사람들은 Bd1을 구사한다.<sup>50)</sup>

50) 필자가 시장에서 10인의 한인을 대상으로 인터뷰한 내용 중 그 특징만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대체로 일상적으로 고려말을 사용하지 않지만, 모두 Bd1의 특징을 보임. 2) 집거지역에 사는 40대 중반의 여성은 어느 정도 고려말을 구사.

3) 53세의 한 제보자는 ‘시금치’를 [zigumchi], 49세의 한 여자 제보자는 ‘심씨(沈

- 5) 변화 인자들의 위계는, 연령>집단의 사람 수>주거 형태>직업, 교육 등과 같이 세울 수 있을 듯하다.
- 6) 모국어 상실 정도가 클수록 상대적으로 러시아어의 간섭이 커서, 'ㅅ(s)>z, ң(n, w)>v'와 같은 조음상의 변화가 나타난다.
- 7) 비자동적 교체 어간의 단순화. 특수 어간 교체 명사의 경우, 예컨대, 제1기의 '여우'(狐)는 자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앞에서는 '여스', 모음 조사 앞에서는 '엮-'으로 교체되었다. 그런데 ①~③은 대체로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앞에서는 '엮-(狐)'으로 교체되고 자음 조사 앞에서는 '여스'가 아닌 '여끼'로 교체된다. 그러나 Bd1은 '여끼'로 어간이 단일화되었다. 특히 모국어를 자유롭게 구사하지 못하는 50대에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졌다. 예, '갈기(粉)-르(<갈그>)', '갈기-두(<가르-두>)', '갈기-느(<갈그느><sup>51)</sup>)'

지금까지 소략하게 고려말의 변화를 koiné적 관점에서 기술하고 몇몇 언어접촉에 의한 변화를 말하였다. 고려말의 변화를 음운, 어휘, 문법 영역 면에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I.L.(언어내적 변화), E.L.(언어접촉에 의한 변화)

### 음운

I.L. : Bd의 음운 특징을 갖게 됨

E.L. : 러시아어의 간섭으로 조음상의 변화

### 어휘

I.L. : Ad를 바탕으로 하고 여기에 Bd가 영향을 줌

E.L. : 러시아어 대량 차용

氏)'를 [zims'i]로 발음. 또한 한 제보자는 고려말의 '시'는 [siy]로 발음. 4) 손 씨 할머니(75세)와 김노라 할머니(76세)는 Bd를 자유롭게 구사. 손씨 할머니는 '그'를 원순성이 약한 [ɔ]로 발음.

51) 1994년의 제보자 한조야를 포함, 김유라 씨는 기저형이 /갈기/로 나타났다. 이 같은 교체 이형태의 단순화는, 소멸해 가는 언어(이중언어 사용자가 두 언어 중 어느 하나를 상실해 갈 때의 그 언어)에서 볼 수 있는 현상일 것이다. 어휘부에 단 하나의 교체 어간 이형태가 남아 있을 뿐이고, 어간 이형태들의 교체에 관여했던 교체 규칙은 상실된 것이다.

**문법**

I.L. : Ad, Bd가 공유했던 특징을 보존. 문종결어미는 Ad.

E.L. : 상대경어법의 등급 등 부분적인 영향

변화의 정도가 큰 순서는 ‘어휘>음운>문법’이다. 문법의 변화가 가장 더디고 상대적으로 어휘는 그 변화가 빠르다. 방언 접촉으로 Ad와 Cd의 음운 특징은 Bd로 변화, 그리고 언어 접촉으로 인한 러시아어의 영향은 어휘에서 가장 크고, 음운과 문법은 상대적으로 적다. 이렇게 고려말은 두 층위 즉, 언어 내부적인 변화(개별방언 간의 수평화)와 언어 접촉으로 인한 변화가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있다.

### 3. 결 론

현재의 고려말은, 한편으로는 한국어 내의 개별 방언 간의 수평화 과정을 거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러시아어와의 접촉을 통해서 변화해 온 특이한 존재이다. 고려말의 내부적 변화는 이 언어에 큰 영향을 주었으리라고 판단되는 정치·사회적 환경을 고려하여 다음 네 시기로 나누었다. 제1기는 초기 이주민이 말하던 육진방언이 우월적 지위를 지닌 시기, 제2기는 비육진 방언권 화자가 급증하면서 비육진 함북방언이 우월적 지위를 누리던 시기, 제3기는 강제 이주 후 집단농장에서 개별방언 화자들이 집거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koiné*와 같은 형태로 발전하기 시작한 시기, 제4기는 집단농장에서 도시로 이주하는 세대가 증가하면서 고려말이 쇠퇴하는 시기이다. 이에 의하면 초기 고려말 내부의 개별 방언들이 본격적으로 적응, 조정, 수평화의 길을 걷게 된 것은 제3시기가 된다. 이 시기는 *koiné* 형성의 초기 과정으로서 우선 여러 개별 방언 화자 집단이 한 곳에 거주하게 되었고 또 수적으로 압도적인 함북방언이 중심이 되어 일정한 조정 과정을 거치던 때이다. 이는 *koiné*가 필수적으로 거치는 과정이다. 현재의 고려말은 그 기반에 육진방언적 요소가 잔존해 있는데 보수적인 육진방언의 음운특징은 함북방언의 영향으로 함북방언의 음운특징을 갖게 되었다. 그런데 고려말은 일반적

인 koiné처럼 하나의 독립된 언어로 발전하여 공용어로 쓰이는 단계로까지는 발전하지 못했고, 또 러시아어라는 전혀 이질적인 언어와 접촉해 옴으로써 자신의 안에 러시아어적인 요소를 지속적으로 축적해 왔고 급기야는 그 러시아어에 압도되어 사멸할 위기에 놓여 있다는 점에서 koiné라 하기 어렵다. 요컨대, koiné의 과정을 맑아 형성 발전되는 단계에서 소멸할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현재의 고려말은 대체로 제3기에 해당하는 시기에 본격적으로 koiné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강주 이주 이전에 연해주에서 언어습득기를 보낸 사람들(80대 중반 이상)은 대체로 모방언을 유지하고 있지만, 제3기에 출생한 사람들(대체로 70세 이하)은 koiné형태의 방언을 구사하며, 제4기를 전후해서 출생한 사람들은, 그들의 거주 유형(집거지역 또는 산거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고려말을 거의 구사하지 못한다.

현재의 고려말을 두고 그것이 일종의 ‘언어섬’이나 ‘방언섬’을 이룬다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지정학적으로 모어와 격리되어 고립적으로 발달해왔다는 사실만을 강조하면 타당한 일면이 있고 또 ‘함북방언’의 한 변종이라 할 수도 있을 것이나 고려말은 그 내부에 러시아어의 요소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immigrant koiné의 성격을 가진 함북방언의 한 변종’ 정도로 이해해 두는 것이 좋을 듯하다.

## 참고문헌

- 고송무(1980), 〈제정 러시아에서의 한국어 및 한국 연구〉, 『한글』 169.
- \_\_\_\_\_ (1984), 『쏘련 중앙아시아의 한인들』, 서울: 한국국제문화협회.
- \_\_\_\_\_ (Kho, SongMoo)(1987), *Korean in Soviet Central Asia*, Studia Orientalia 61, Helsinki.
- \_\_\_\_\_ (1990), 『쏘련의 한인들 고려사람』, 이론과 실천.
- 고영근(1997), 〈1920년대 소련 한인사회의 한국어문 표준화운동〉, 『관악어문연구』 22(서울대 국문과).
- 곽충구(1986a), 『노한회화(해제)』, 『한국학보』 44, 일지사.
- \_\_\_\_\_ (1986b), 『노한회화와 함복 경통방언』, 『진단학보』 62.
- \_\_\_\_\_ (1987), 『노한소사전의 국어학적 가치』, 『관악어문연구』 12(서울대 국문과).
- \_\_\_\_\_ (1988), 〈『로한즈던』의 한국어와 그 전사에 대하여〉, 『이화어문논집』 10(이화여대).
- \_\_\_\_\_ (1991/1994), 『함경북도 육진방언의 음운론』, 박사학위 논문(서울대). [『함경북도 육진방언의 음운론』, 국어학총서 21, 태학사, 1994]
- \_\_\_\_\_ (1993), 『함경도 방언의 친족명칭과 그 지리적 분화』, 『진단학보』 76.
- \_\_\_\_\_ (1994), 〈카자흐스탄의 고려인과 고려말을 찾아서〉, 『전망』 9월호, 대북연구소.
- \_\_\_\_\_ (1998), 『육진방언의 어휘』, 『국어 어휘의 기반과 역사』, 태학사.
- \_\_\_\_\_ (2000a), 『재외동포의 언어 연구』, 『어문학』 69, 한국어문학회.
- \_\_\_\_\_ (2000b), 『함북방언의 비자동적 교체 어간과 그 단일화 방향』, 『21세기 국어학의 과제』, 월인.
- \_\_\_\_\_ (2000c), 『육진방언의 현상(現狀)과 연구 과제』, 『한국학논집』 34(한양대 한국학연구소).
- \_\_\_\_\_ (2001), 『구개음화 규칙의 발생과 그 확산』, 『진단학보』 92.
- 나라리사(2002), 〈카자흐스탄 고려말의 문법과 어휘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서울대).
- 김올가(2001), 〈카자흐스탄 한인들의 민족정체성과 언어 문제 연구 : 1990년대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서울대학교).
- 김필영(2004), 『소비에트 중앙아시아 고려인 문학사』, 강남대학교 출판부.

- 이기갑·김주원·최동주·연규동·이현종(2000), 〈중앙아시아 한인들의 한국어 연구〉, 『한글』 247.
- 이병근(2001), 〈방언과 방언학〉, 방언연구회 편: 『방언학사전』, 태학사.
- 이광규·전경수(1993), 재소 한인·인류학적 접근, 서울: 집문당.
- 장준희(1998), 〈카자흐스탄 고려사람의 민족정체성 변화 과정 연구〉, 석사학위 논문(한양대).
- 정용호(1988), 『함경남도 방언연구』,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 차바실리(2001), 〈카자흐스탄 고려말 교육 정책 연구〉, 석사학위논문(서울대).
- 킹, 러쓰·연재훈, 〈중앙 아시아 한인들의 언어-고려말〉, 『한글』 217.
- 한득봉(1991), 〈소련에서의 한국어 교육〉, 소련에서의 한국어학과 한국어 교육, 『이중언어학회지』 8.
- 허승철(1996), 〈구소련지역 한인의 언어 동화와 이중언어 사용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연구〉, 『재외한인연구』 6.
- 황대화(1986), 『동해안방언연구-함북, 함남, 강원도의 일부 방언을 중심으로』, 평양: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 뻬뜨로와(1956), 〈로씨야와 쏘련에서의 조선어 연구사 개요〉, 평양: 『조선어 문』 1.
- 오구라 신페이(1927), 〈咸鏡南北道 方言〉, 『朝鮮語』 2, 朝鮮語研究會.
- \_\_\_\_\_ (1944), 『朝鮮語方言の 研究(上・資料篇)』, 東京: 岩波書店.
- Asher, E.R. et al. (eds.) (1994), "Koinés", *The Encyclopedia of Language and Linguistics*, Oxford: Pergamon Press.
- Kang, G.V.(1994), *Koreitsy Kazaxstana*, Almaty.
- Kim Syn-Khva(1965), *Ocherki Po Istorii Sovetskikh Koreitsev*, Alma-Ata.
- King, J.R.P.(1987), "An Introduction to Soviet Korean," *Language Research* 2 3 · 2, Seoul National Univ.
- \_\_\_\_\_ (1988), "The Korean Dialect Materials in Matveev's 1900 Reference Book to the City of Vladivostok", *Language Research* 24, Seoul National Univ.
- \_\_\_\_\_ (1989), "A 1902 Cyrillic-script Rendition of 'Little Red Riding Hood' in North Hamkyeng Dialect," in the proceedings of the Third Annual WOKL.
- \_\_\_\_\_ (1992), "Archaisms and Innovations in Soviet Korean Dialects."

- Language Research* 28 · 2, Seoul National Univ.
- \_\_\_\_\_ (1994), "Dialect Elements in Soviet Korean Publications from the 1920s," In: Howard I. Aronson (ed.), *NSL 7: Linguistic studies in the non-Slavic languages of the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and the Baltic Republics*, published by the Chicago Linguistic Society, Chicago, Illinois.
- \_\_\_\_\_ (1996), "Russian Loanwords in Hamkyeng and Soviet Korean Dialects", 『李基文教授 停年退任紀念論叢』, 신구문화사.
- \_\_\_\_\_ (2001), Blagoslovennoe: Korean village on the Amur, 1871~1937. *Review of Korean Studies* 4 · 2 (December), Korea: Academy of Korean Studies.
- \_\_\_\_\_ (2003), "Is "Koremar" a Koiné? Language Contact and Language enclave Phenomena in 'Soviet' Korean," 서강대학교 언어정보연구소 발표 초록.
- Men, D.V. et al.(eds.) (1992), *Sovetskie Korejtsy Kazakhstana*, Alma-ata.
- Koncevich, L.R.(菅野裕臣 譯註)(1971), 〈소련의 한국어학〉, 『아세아연구』 14 · 4(통권 42).
- Pak Nelli(1991), "On Korean Dialects in the USSR", 『이중언어학회지』 8.
- \_\_\_\_\_ (1996), "Tendentsii Pazvitija Kore Mar", *Xabarlyary-izvestija*, Natsionalijnoj Akademii Nauk Respublikii Kazakhstan, Serija Obschestvennyx Nauk.
- \_\_\_\_\_ (1995), "Korean Kinship Terminology(Yukchin Dialect of Kore mar)", *Izvestija Koreevedenija Kazakhstan*, Vypusk 1, Almaty.
- \_\_\_\_\_ (1997), "Divergent Processes in Language Development(Yukchin Dialects)", 『李基文教授 停年退任紀念論叢』, 신구문화사.
- \_\_\_\_\_ (1997), "Besonderheiten der Kasusformen des Yukchin-dialects des Koreanischen in Kazachstan", 『국어학논집』 3, 태학사.
- \_\_\_\_\_ (2001), "Jazyk-Variant Jazyka-Koine-Dialect." The Second Kazakhstan-Korean International Conference, *Korean and Central Asian Region N 2*, Almaty.
- \_\_\_\_\_ (2004), "Problema Ischeznenija Minoritarnyx Jazykov, Avtoreferat Dissertatsija na Soiskanie Uchenoj Stepeni, Doctora Filologicheskix Nauk, Almaty
- Putsillo, M.(1874) *Opyt Russko-Korejskago Slovarja*, S. Peterburg.

- Siegel, J.(1985), "koines and koineization," *Language in Society* 14 · 3.
- Vovin, A.V.(1989), "Some Data on the Soviet Korean Language", *Language Research* 25~2, Seoul National Univ.
- Weinreich, U.(1953), *Languages in Contact: Findings and problems*, New York: Linguistic Circle of New York, No. 1.
- Xolodovich, A.A.(1954), "Fonetica Severnya dialektov", *Ocherk Grammatiki Korejskago Jazyka*, Moskva.